(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801 1982년 4월19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April 1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APR 19 1982

115년만에 자체헌법

엘」여왕 17일 오타와서 선포식

(오타와)영국의 식민지적 마지막 잔재를 없애는 캐나다헌법 전달식이 17일 엘리자베드여왕 참석아래 거행된다. 연방국가 건립후부터 115년간 영국의회가 제정한 법을 헌법으로 사용해 온 캐나다에게 고유헌법을 선포해 주기 위해 여왕은 4일예정으로 14일 오타와에 도착했다.

여왕은 21발의 축포가 울리는 가운데 에드·슈레이어총독, 트로도수상등과 양국국기를 흔드는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거행될 헌법선포식에는 약 10만인파가 몰릴 것으로 추산되며 여왕은 23분간의 헌법전달식을 주재한다.

일기가 나쁘면 의사당내로 옮겨 상원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갖는다.

한편 선포식을 하루 앞두고 레베 퀘벡주수상은 "새헌법의 인권조항이 퀘벡주에 적용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신헌법에 의하면 각주는 임의대로 새헌법의 일부 조항을 무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퀘벡주가 가장 불만을 가진 새헌법의 언어교육조항은 주의회가 변경할 수 없는 의무조항이다.

캐나다가 자체 헌법을 갖더라도 영연방(Commonwealth)의 멤버로 남는 것과 영국왕(현 엘리자베스여왕)을 국가원수로 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캐나다는 새헌법에 따라 헌법개정권을 처음으로 갖는다. 이제까지의 헌법인 영국북미법(BNA)이 영국의회가 제정한 법이었기 때문에 캐나다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영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여왕폐하 황공무지로소이다"
17일의 헌법선포식차 오타와 공항에 내린 엘리자베스 여왕을 맞이 90각도 절을 하는 트루도수상(관련기사 2면)

고테리팍스 기념우표발행
"의지의사나이" 뜻을기려

(포트·코퀴틀람－B.C.) 희망의 마라톤주자 고테리 팍스를 기리는 기념우표발행기념식이 13일 팍스의고향 포트·코퀴틀람에서 열렸다.

이곳 레이크레이션·센터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한쪽다리로 달리는 팍스의모습이 그려진 대형우표상제막식이 거행됐다.

연방우정성 앙드레·울레장관은 기념사에서 신체의 결함이 인생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해보인 고 팍스군의 용기를 높이 기렸다.

팍스는 암으로 오른쪽다리를 잃었으나 불굴의 의지로 캐나다횡단 마라톤을 시도, 2천4백만달러의 암연구기금을 모았다.

팍스군의 희망의 마라톤은 암이 폐까지 침투, 80년 9월1일 썬더·베이에서 중단됐다. 팍스는 그이듬해81년6월28일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이날기념식에는 팍스의 부모와 세동생이 참석했다.

팍스우표는 30센트로 캐나다 전역에서 구할 수 있다.

전미주 태권도대회 임송학도장 주최

오는24일 에토빅콕 올림픽스타디엄에서는 82년 전미주태권도대회가 거행된다.

임학송태권도장이 주최하는 이대회에 캐나다는물론 미국선수들이 참가, 각 체급에 나뉘어 결전을 벌인다.

입장료는 성인$5, 학생들은 $3이다.

한인합창단 이사회"친목의밤"

토론토한인합창단 (지휘 박재훈)은 새이사장 박희민 목사를 비롯, 새 이사진과 구임원진 내외를 위한 이사회 친목의 밤을 연다.

때와 곳은 18일(일)하오7시 차이나하우스(925 에그린턴·웨스트)

교민낚시대회 12개상품 시상

한인낚시협회(회장 정상렬)주최 본사후원의 교민낚시대회가 오는5월24일상오8시30분～하오4시 벨 우드 공원에서 열린다.

총영사관과 한인회도 후원하는 이 대회에는 총영사배(특상)을 비롯, 대어상, 치어상, 다어상, 여성참가상 등 12가지의 상이 걸려있다.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부부참가를 환영한다.

이번대회는 동궁식당, 블루어안경점, 한국식품, 무역관등이 후원하고 있다.

도시게릴라성격 신형범죄발생 우려
暴力테러 對備組구성
徐내무, 국회내무위「放火사건」답변

〈서울본사전화〉 국회내무위는 9일 서정화내무장관과 안응모치안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뒤 이에따른 정책질의를 벌였다.

서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최근 학원가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종속이론이나 혁명이론등이 학문적차원에서 연구되는것은 이데오르기 연구로 볼수있지만 이것이 학문연구나 토론을 빙자한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구독문의
533 2361

社說

역사적 발족
－한인이민사연구실의 존재가치

토론토한국일보사는 작년 81년도에 「한인민족상」을 창설한데 이어, 올해는 다시 문화 제2탄으로 「한인이민사연구실」을 4월5일자로 발족시켰다.(본보 4월7일자)

이것은 작년봄 윤전기 도입, 81년6월1일 캐나다한인언론계 최초로 일간지 발행의 획기적 장거와 더불어 금년 3월5일 한글 컴퓨터식자기 도입에 의한 기사식자면의 고속화 실현등과 아울러 이곳 한인문화사에 기념탑으로 남을 일이라 해도 결코 자화자찬은 아닐 것이다.

★

이중에서도 「한인이민사연구실」의 설치는 벌써 실현을 보았어야 했을 한인사회의 과업이었다. 이민·정착 20년에 접어든 오늘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누군가가 꼭 착수해야 할 일이기에 본사는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이 연구실을 마련한 것이다.

한 민족이 해외에 나가 집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 적응하는 과정의 동화단계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민족 고유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현지문화 풍토와 융합하고, 나아가 더욱 고차원의 종합문화로 발전시키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비중 큰 과업이요, 빛다운 사명이다. 이 나라도 정책으로 다양문화를 지향, 뒤밀고 있음은 이민그룹의 고유문화가 역사적 뿌리가 얕은 이땅에 자양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민사 정립의 기초작업은 우선 관계자료 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민 초창기 선구자들이 작고하고, 모국이나 미국등지로 이주하기도 하니 그만큼 정확하고 구체화된 초기의 정사(正史)자료 얻기가 날이갈수록 불가능해진다. 또한 이민중반 이후의 자료도 한인사회 건설의 주역들이 흩어지고, 이동, 사진·유인물·통계자료등등 참고문물및 증언청취가 어려워지니 앞으로 해야할 정확한 이민사 편찬에 지장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질의 사업은 전국 각지역 한인회·노인회·문화단체·교회·친목회·동향모임·체육단체·학생단체·동창회에 이르기까지 한인계 모든 단체의 열띤 협조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광범위한 사업이다.

혹은 개인적 전시회·발표회·간행물들의 포스터, 프로그램, 참고사진들도 널리 수집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캐나다내 4만여 한인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하며, 전체 교포의 총력을 모은 집단적 사업성격을 띤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민사 편찬을 위한 구체적 자료로는 개인의 경우, 스크랩북·일기장(이민수기)·회고록·가족(기념)사진·이민자와 본국내 인사와의 사이에 오간 편지, 저서나 연구기록등을 들 수 있겠고 단체의 경우는, 관계기록·회의록·행사 사업보고서·회칙·단체약사·회원명부·보도자료·참고사진등이 될 것이다.

교회관계 기록도 매우 소중하니 이민초기및 정착기를 통하여 교회는 한인들의 구심점 구실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례·혼인·장례식·회보·행사관계 기록문과 사진·간행물·주일학교나 한글학교 관계서류·신자명부·교회약사·설교집·부흥회등 집회기록들이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밖에 신문·동인지·잡지·저술·연구논문·행사특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민사료가 된다 하겠다.

★

이번에 설치된 한인이민사연구실은 결코 설립체인 신문사만의 소유가 아니며, 전국의 한인단체·개인에게 개방된 기구인 것을 재차 밝혀둔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연구실에 비치된 문헌·통계·관계문물등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자료가 모아진 후 실제로 이민사를 기술하는 작업은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겨질 것이다.

탄생의 소리를 낸 이 기구를 교포모두가 아껴 기르고, 유용하게 이용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전국태권도대회 키치너 오충원도장

캐나다전국 태권도 대회 (Canadian National Tae Kwon－Do Team Trials)이 오는24일(토)저녁7시온타리오주 키치너의 오충원태권도장이 주최로 코네스토가 컬리지 센터 짐네이지움에서 개최된다.

연령별, 단별 토너먼트는 대회당일 오전11시부터 시작되며 한국민속무용도 펼쳐질 예정이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미인대회 예비소집◇

제1차：4월21일(수) 하오7시
곳：토론토한인회관
※대회진행요령·유의사항 설명 심사위원 대면

제2차：4월23일(금)하오6시
곳：토론토한인회관
※예행연습·특기 예비심사

제3차：4월24일(토) 하오2시
곳：다운타운 HOLYDAY INN(토론토시청 뒤)
※대회장 무대에서 총연습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인 쇄 인：박 정 서
광고부장：송 광 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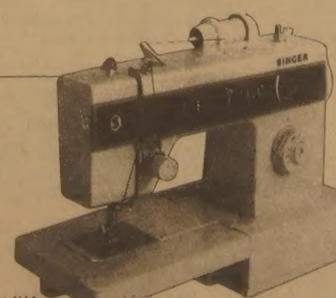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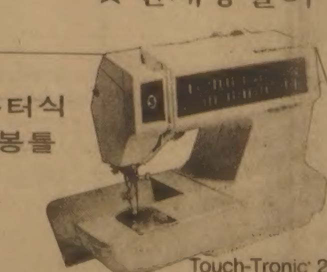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3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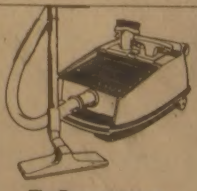
쿠폰을 가져오면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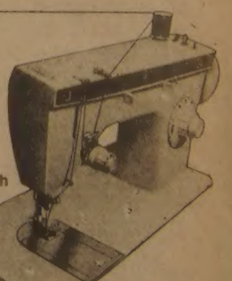
봄맞이대스페샬

★수리및 4 STEP TUNE－UP $29.95 ★무료강습
★헌재봉틀과 교환시 좋은혜택을 드립니다.


●FREE ARM
●BUILT IN BUTTONHOLER
●STRETCH STITCH
●SLANT OVEREDGE
●BLINDSTITGH
Reg. $299
Save $70
●MODEL 5144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교포同業者 請負殺人 教唆혐의 下手人이고발 被訴

예비공판열려 警察이 下手人위장 증거수집으로 表面化

◇…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여 동업하던 교포가 파트너인 상대방을 청부살인하려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기…◇
◇…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다. 사건내용은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하수인(미국인)이 경찰에 고발한후 경찰의특…◇
◇…별수사요원이 하수인으로 가장하여 증거를 수집하게됨으로써 표면화된 것이라고 수사당국 관계자가 밝…◇
◇…혔다. 지난 8일부터 LA카운티 뮤니시펄코트 디비전—3에서는 길버트·루이즈판사 주재, 리사·스카트…◇
◇…검사관여로 김연덕(가명, 호텔설립추진)씨에 대한 청부살인교사혐의에 관해 예비공판이 있었다. …◇

김씨는 지난해 10월8일 동업자인 박기하(가명, 호텔설립추진)씨에 대해 남미계청년 아깔라(29)를 시켜 청부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8일 상오10시에 개정된 예비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살인청부를 받았던 아깔라, 동업자 박기하씨등이 출두했으며 피고 김연덕씨는 변호인 마이클·야마끼씨와 함께 출정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 아깔라는 리사·스카트 검사심문에서 『피고 김씨가 금품을 주면서 보석을 많이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아깔라는 검사의 『당신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한 사람을 지적해볼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손으로 피고를 가리키기도 했다.

한편 암살대상이 되었던 교포 박씨는 이날 증언에서 『동업자인 김씨와는 4~5년전 부터 교제했다』면서 『모텔업을 동업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야마끼씨는 재판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 루이즈판사는 피고측의 기각신청 이유도 이해하나 사건자체는 수퍼리올코트에서 계속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번 김씨의 청부살인교사혐의 사건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배심원평결이나 프래바게인을 통해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의 예비공판은 6차에 걸쳐 연기된 후 열린 것이다.

한편 박씨는 사건당시 고소된 김씨와 공동명의로 1백여만달러를 은행에 입금시키고 있었으며 경찰이 찾아와 『김씨가 당신을 죽이려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처음으로 사건내용을 알았다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몸서리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부살인사주사건을 심리한 지난 8일의 LA뮤니시펄코트 3호법정에는 하수인 아깔라부터 증언대에 올랐다.

아깔라는 시종 스페인어로 대답했으며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했다.

아깔라는 김씨는 지난해 9월 처음만났으며 나쁜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받았음을 증언했다.

그후 몇번 김씨와 만난후 살인음모가 확실해 경찰에 밀고했으며 그후부터 경찰당국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3월의 센터폴드—플레이보이지의 3월 센터폴드 21세의 카렌·위터양. 위터양은 봉고메리·워드백화점 개점광고에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실버·펜던트만 걸친 모습이 될것이라고.

"빨리 처치하라 종용받았다" 증언

그는 나중에 김씨에게 살인청부업은 할수 없다고까지 말했으나 김씨는 『가능한 빨리 처치할 것』을 종용받았다고 증언했다.

스카트검사는 행동개시일인 1981년 10월8일에 김씨가 하수인에게 사건을 지시하는 장면의 사진들을 아깔라증인에게 확인시킨 뒤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측심문은 하오 심리까지 계속됐으며 변호인측도 아깔라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통해 김씨의 범행의사가 확실시 되지 않는다고 중점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이날 하오심리에서 하수인은 김씨의 표적은 오직 박씨 한사람이며 박씨의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았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도중 일단 휴정때 기자와 만난 김씨는 『답답할 뿐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박씨는 『경찰로 부터 사건내막을 듣고서도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왜 그사람이(김씨를 지칭) 나를 해칠려 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33-2361

자녀양육은 팀·플레이 ②
아버지 역할도 중요

◆한 인격으로서의 아버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이들은 부모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가 감정문제및 대인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배운다.

부모가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린이에 보여주는 것이 좋다. 아빠와 엄마사이의 불화는 공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자녀는 인상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배운다. 부모가 문제를 깨끗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면 그들의 자녀는 일시적으로는 방황할지 몰라도 불화자 잘만 처리되면 안정을 파괴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진시키는 방법을 터득한다.

◆자녀의 성적발달(Sexual Development)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아빠와 엄마는 자녀들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이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산표본이다. 아버지는 보통 자녀들이 접촉하는 첫번째의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남성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따라 배우며 이로써 남성관과 아버지상을 정립해 나간다.

예를 들어보자. 아빠와 엄마는 3살난 철이에게 새로 얻은 강아지를 사랑과 친절로 다루어야한다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강아지가 장난을 쳐 자주 응접실을 어지럽히고 짖어대면 아빠나 엄마는 매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아지를 밖으로 쫓아낸다. 철이는 이것을 볼때 난폭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부모가 애완동물을 이런식으로 취급하면 철이는 이것을 「남성적」인 행위로 오해하기가 쉽다.

어린이들은 모방의 천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아빠의 언행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어린 자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에게서 모두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표현을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특히 아버지가 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가 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그녀가 매력적인 인간임을 확신시켜주지 못할때 그녀는 모든 남성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며 나중에 이상성격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최선의 지침은 "자연스러움"이다. 자기자신의 마음상태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 만약 자녀와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가, 정신외학자, 목사등을 찾아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기억해야할 것은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아서 그릇되는 법은 드물다는 것이다. (계속)

뜬 구름 (EMPTY DREAM)

최 수 호

「편집자주」 필자 최씨는 모사전에 연루, 한국에서옥고를 치른후 지난2월 토론토로 돌아왔다. 전토론토한인축구협회장이기도 한 최씨는 현재 친구들의 도움으로 토론토에서 도낫츠·샵을 경영하고 있다.

"엠티 드림"을 우리말로 바꾸어 놓으면 남가일몽이란 뜻이 되겠고, 좀더 의미를 붙인다면 허황된 꿈, 또는 뜬 구름잡는 격 등등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뜻이야 어떠하든 나는 그러한 꿈속에서 깨어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셈이다.

돌아보면 가슴만 아픈일, 어리석은 잠꼬대라고 단정짓기엔 너무나 쉬운말, 캐나다사회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포들에게 "용서해 주오"라고 머리숙인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나의 존재가치를 모두 멸시해 버리고, 자학해 버린다면 보다더 참혹한 비극의 연속, "패노라마"같은 어느 뜨거운 여름철 코리언 타운의 한 구석진 벽안의 속삭임이 이렇게 나를 고개숙여 하늘을 볼 수 없게 하였고, 눈을 돌려 인간을 볼 수 없게 하여, 꽁꽁 얼어붙은 땅덩어리위에 내 조그마한 두 발을 붙이기조차 어색하고 서먹서먹하여 진다. 하물며 벗어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앞엔 어떻게 서야 될까? 티없이 자란 어린 3남매의 소박한 눈동자에 비추어진 아빠의 추한 모습은 반사적인 현상으로 센시빌리티하게 내 맘에 부딪친다.

무섭도록 심각하고 혼탁한 시대적 사조와 생존경쟁의 대열에서도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대로의 생활철학 속에서 고매하고 플라토닉한 이상을 길러왔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북돋았고, 가꾸었고, 닦으며 번뇌를 메워 왔었다.

그러나 그 흔적은 검게 물들었고, 침체된 나의 생활은 오히려 퇴폐라는 얼룩진 상흔으로 환치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탈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과 현실앞에서 그대로 석고가 되어 버릴 수도 없고, "피에로"가 될 수도 없으니 이젠 조용히 진리속에 묻혀 말만 들어도 머리끝이 솟구치는 티.티.시.에 박혀있는 나의 오점을 하나 둘 샅샅이 씻어보자. 품고 있는 문제는 정지의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하나의 문이 닫힐 때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철리에 의한 나의 생활은 이 순간부터리도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겨 옳음을 추구하고 실현시키면서 성실하게 이정표를 세워갈 때 고갈상태에 빠진 인정에도 즐기는 생생하게 나의 피부에 접거돼 있는 세표혈에 흡족히 스며들리라 믿는다.

미지의 그때를 기대하면서 나는 나의 영육간의 몸차림을 건실하게 손질하고, 스스로 자신을 새로이 창조하고, 참된 모습을 발견하며, 25시에 비극과 절규를 고무적인 순화방향으로 길바꿈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아울러 10개월 동안이란 길고도 짧은 세월 속에서 내 조국 대한민국이 나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준 훌륭한 교훈은 나의 생애에 알찬 지표가 될 것이며, 나의 행동에 거울이 될 것으로 믿어 깊이 맘속에 새겨 보며 국은에 보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보자.

끝으로 부족한 나를 위하여 염려해 주신 모든 교민들과 친지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 성도들을 힘입어 다시금 새길로 발돋움하는 내 맘은 뜨겁게 뜨겁게 감사를 드리면서 참회의 눈물을 머금어 본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있었고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 : 2－3

빛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것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빛은 창조의 근본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빛을 보지 못하고 암흑속에 버려진 불우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우리들의 조국에는 지금 12만명의 맹인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읍니다. 절망의 늪에 빠저 헤어 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1. 믿음을 심어주어 소망가운데 살게 하며, 2.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립케하며, 3.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4. 맹인 지도자 양성을 적극 도우며, 5. 개안 수술로서 시력회복이 가능한 맹인 청소년들에게 광명을 찾게 하는 것등을 사업목표로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가 창립된지도 어언 한 돐이 지났읍니다. 그동안 저희와 뜻을 함께 하여 주신 많은 교민 여러분과 단체들의 물심 양면의 협조로 불우한 그들에게 적은 도움이 나마 줄 수 있었던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교민 여러분의 귀한 성금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광명을 찾게된 정경해씨의 서신을 여기 소개하는 것은 그분의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저 하는 것이 오니 함께 기뻐해주시고 그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12만명의 실명자 가운데 약12%가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장애를 겪고 있고 이들의 절반 가량이 정경해씨 처럼 수술로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명자의 대부분이 수술비는 커녕 생계 조차 어려운 것이 그들의 실정이라 수술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이 한국맹인복지회와 한국안과의사회의 공동사업으로 개안 수술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읍니다. 비용은 약값만 실비로 받고 수술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개안수술 1건당 300불이 소요되고 있읍니다. 단돈 300불에 생명의 빛을 되찾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개안수술지원 사업을 앞으로 저희 후원회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마지 않읍니다. 저희 후원회 회원이 되셔서 이일에 동참하시는 것과 금품을 희사해 주심으로 이 일을 적극 지원해 주실 수 있읍니다.

카나다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8세의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이름은 정경해입니다.

눈은 어려서 부터 안보였읍니다.

쭉 살다가 홍회전도부 맹인선교회에서 개안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신청을 하여 수술을 했읍니다.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의사랑의 개안수술비로 무료 수술을 했읍니다.

눈물의 감격뿐입니다. 수술시 붕대를 감고서는 얼마나 가슴 조였는지 모릅니다.

볼 수 있을까 ?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붕대를 풀고 제 눈에 모든 사물이 보이질 때는 눈물과 기쁨 뿐이었읍니다.

이제는 모든일을 앞장서서 노력하는 자가 되겠읍니다.

저로서는 기쁨 그 말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눈물의 감격 뿐입니다.

이 기쁨을 오래 간직하며 또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의 홍회전도부 맹인선교회의 사랑을 잊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후원회의 발전을 빕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겠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1982. 1. 23.

정 경 해 드림.

※ [illegible]

▲1981년도 사업실적

1) 장학생(5명): 지백현(남),김지연(여),소정미(여), 이혜련(여),김연우(남)
2) 노인맹인구호자(4명): 이재진(남),전차수(남),김미자(여),신기영(남)
3) 개안수술자(3명): 박재정(남),정경해(남),장찬회(남)
4) 선교비(1명): 서울맹인침례교회(강용준 목사)

▲1982년도 사업계획

1) 개안수술 6 – 8명
2) 맹인자녀 장학금지불 5명
3) 노후맹인의 생계비지원
4) 맹인교회 선교사업지원
5) 기술교육및 맹인지도자양성

◎찬조금 내역

●81년도 :

원종성	$25
샛별한글학교	$17.87
제일장로교회여전도회	$50
이운호씨모금	$48
고종옥신부	$100
벧엘교회	$500
제일장로교회	$365
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400
한인장로교회	$100
센츄리냉동(이인식)	$40
한국관(이기항)	$30
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	$350
남전도회 개안수술비	$300
삼성사(김상표)	$20
비세븐(김영철)	$50
쌩써므마린(최재권)	$20
코스모스(성창근)	$10
유영일(코리언저널)	$100
미도파(장추신)	$100
박인순	$50
거북이선물(이정석)	$100
고려식품(원재훈)	$30
윤용섭	$50

●82년도

제일장로교회 유년주일학교	$137.31
장하진(개안수술찬조금)	$100
이순자(찬조금)	$50
제일장로교회학생회선교비	$118
홍순관(토론토교역자협회)	$200
박재훈(한인합창단)	300
무명	$90

—82년도3월까지—

성명: ______ 영문: ______ 전화 R: ______
주소: ______ B: ______

1. 본인은 귀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코저 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아직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으나 성금으로 귀 후원회 사업을 원코저합니다.

※ 년회비50불

금액: ______
본인성명: ______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장 귀하

※ 본 후원회는 현재 비영리 사회봉사단체 등록신청을 연방정부에 제출하였고 불원간 허가번호가 교부될 것 이오니 회비나 찬조금은 소득세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내실곳: ONTARIO FUNDATION FOR THE KOREAN BLIND
BOX70 POSTL STATION "B" TORONTO ONT
M5T–2T2 전 화: 593–8943

광고협찬 : 미도파백화점
대표장추신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禁書」라야 잘읽힌다

말리면 말릴수록 好奇心자극 젊은이들이 購讀

미국의 젊은이들은 요즘 책을 더 이상 읽지 않는다는 말을 거의 매일 듣다 싶이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내에서 가장 열띤 논쟁가운데 하나가 학교에서 독서가 금지된 서적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비난은 아이러니칼한 것이다.

민간인 사서들은 학교당국과 공공도서관들이 최근 일부 서적들에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놀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된 서적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읽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갖고있다.

TV의 필·도나휴 쇼에서 논쟁을 벌일만한 값어치가 있는 문제서적이라면 무엇인가 섹스나 마약처럼 황홀한 내용을 담은 책 임에 틀림없다고 젊은이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화가나서 불태워버리고 싶어하는 책이라면 무엇인가 재미있는 책임에 틀림없다고 젊은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보수적인 레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미국의 보수파들은 그들 생각에 『반미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외설적인 책들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일층 강화시켰다.

작년 한해 千여冊子가 檢閱받은것으로 判明
주로 性的묘사책이나 有名서적도 상당수나
美도서관협회에 報告된 검열사례 3倍 늘어

미국도서관협회산하 지적 자유사무처(Office of Intellectual freedom)에 보고된 서적검열시도케이스는 최근 3배로 증가했다.

OIF처장 로버트·도일은 작년 한해동안만 약 1천건의 서적검열케이스를 보고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적검열의 대상에 오르기 쉬운 책들은 성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이다.

그러나 도일은 검열 대상에 오른 문제서적들이 사실은 미국사회와 정치에대한 보다 커다란 관심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다루고 있는 심각한 책들이라고 믿고있다.

검열대상이 된 서적들을 예로 들면 여성애호가들의 건강서적인 『우리들의 몸자체(Our Bodies Ourselves)』, 여성잡지 미즈(Ms.),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포트노이의 불평(Portnoy's Complaint), 뻐꾸기둥지위로 나르다(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크래머 대 크래머 (Kramer vs. Kramer), 허클베리·핀(Huckleberry Finn), 그리고 주디·브룸이 쓴 책들이다.

최근에 서적검열을 둘러싼 한 소송케이스가 연방대법원에까지 제기되었다. 이 케이스는 학교도서관에 9개의 문제서적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롱아일랜드의 아마랜드·트리스 교육위원회가 내린 1976년도의 결정을 둘러싼 소송이다.

1976년 아일랜드·트리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도서목록에 관한 토론을 한 다음 롱아일랜드교외에 있는 한고등학교도서관에 들려 문제서적들이 서가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아일랜드·트리스 교육위는 나중에 커트·본네거트의 도살장 5(Slaughter House Five)과 버나드·멜라머드의 해수자(The Fixer)등 9개의 책들을 도서관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학생위원회위원장이었던 스티븐·피코와 다른 4명의 학생들은 교육위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서적검열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차미국수정헌법에 관련된 잇슈가 아니고 컴뮤니티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에 대해 통제를 가하느냐 않느냐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단체소송을 제기한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피코는 현재 전국검열반대연맹(NCAC)에서 일하고있다.

그는 최근에 한 TV인터뷰에서 『검열이 국가적인 잇슈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피코는 지금도 1976년당시의 교육위처사가 위헌적이었다고 믿고있다.

아일랜드·트리스 교육위의 검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컴뮤니티의 검열권한의 한계를 밝히는 획기적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미국에는 현재 아일랜드·트리스교육위 케이스와 유사한 검열사건들이 많다.

인디아나주에서는 일단의 사람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 한 책을 40권이나 불살랐다.

保守的·레건집권후 反美·反교회追放 캠페인
司書들 일부서적檢閱시도에 못마땅한 표정들
禁書기준싸고 反應갈려 일부선 「알權利」찾아

메인주의 배일리뷔에서는 한 교육위원회가 말썽의 대상이 된 소설책 『365일』을 학생들이 읽지못하도록 금지를 했다. 이 소설책도 베트남전의 미군들을 묘사한 책으로서 외설적인 단어들을 많이 포함하고있다.

팬실배니아주의 지라드에서는 학부형들이 들고일어나서 스터즈·터켈이 쓴 일(Working)이라는 책을 자녀들이 읽지못하도록 컴뮤니티의 교육자치권한을 행사했다. 이 책을 창녀들을 포함한 미국의 갖가지 직업인들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한 책이다.

작가 터켈은 3월초에 직접 지라드를 방문하고 자기가 쓴 책을 변호했다.

동병상린의 터켈과 주디·브룸은 최근에 TV의 필·도나휴쇼에 출연하여 서적검열에 관해 신랄한 비평을 했다.

알라바마주 패어호프의 공립도서관장 클래어·오크스는 성의 즐거움(The Joy of Sex)이라는 책을 서가에 비치하지말라는 패어호프시장의 지시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다.

오크스는 법원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복직되었으나 그뒤 다시 파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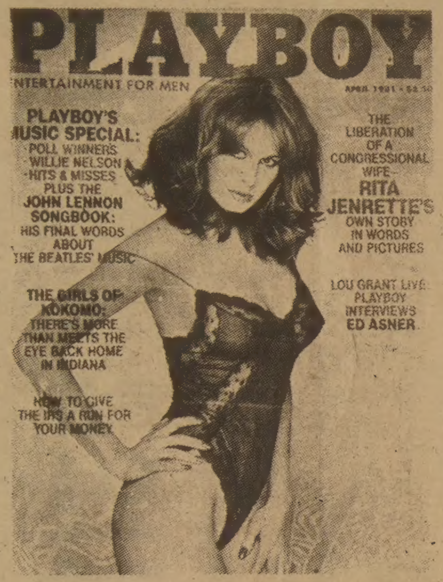
『나는 남부사람입니다. 이곳에 머무르며 끝까지 투쟁하고 싶었으나 남부에서는 직장을 구할수가 없었읍니다』고 오크스는 남부의 보수적 편견이 얼마나 강한가를 설명했다.

그녀는 현재 일리노이주 프로스푸어 도서관장으로 일하고있다.

미국도서관협회 OIF처장 로버트·도일은 서적검열추세가 무서울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몬타나주·화이트홀의 한 도서관은 컴뮤니티의 압력에 굴복하여 2개의 문제서적들을 도서관에서 제거했다. 불과 일주일뒤에 사람들은 도서관에 또 다른 15개의 금지서적목록을 가져왔다.

이것은 도일이 서적검열의 추세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한가지 예에 지나지않고있다.



▲「플레이보이」는 성관계 책자론 그래도 점잖은편(?)—10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잡지나 책등 「금서」에 더많은 관심을 보인다.

<매일연재 캐나다소설> (148)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정당하고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은 원주민 선생들을 양성해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이사람들에게 돌려보내 자기들이 배운것을 가르치게 해야한다. 이문제의 본질은 절대로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북극사람들은 백인들의 종교, 경제, 정치적인 강령들을자기들이 원했을때 이해를갖고 자진해서 받아들일수있는 위치에 놓여져야 될것이다. 그런다음 북극에있는 교회들이 적어도 그들의새로운 신자들은 현재 원주민신자들처럼 넋을잃은 얼간이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것이다.

북극원주민의 교육은 그들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각종교단체들이 서로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관점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마는 내 사견으로는 온건하다고 본다. 암투를 벌이고 있는 종교단체들 사이의 심한 경쟁으로 말미암은 이런싸움 때문에에스키모들을 더욱 위험하게 맞드는데 이들 단체들은때때로 원주민들의 몸과 영혼을 그들의 이상한 싸움에 앞잡이로 이용하면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것은 북극 원주민들은 우리가 그들의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을 순수하게 만들어 줄때까지 우리의 문화와 관련을 맺을수 있는 참된 기회가 거의 희박할 것이다. 적당한 학교제도, 원주민의사가 경영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공평하고정직한 경제대책들이야 말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한컵을 주는것은 칭찬할만한 짓일런지 모른다. 그러나우리의 힘으로 이 죽음을 막을수 있을때 그사람을 죽게 버려두는것은 비열한짓이다. 실지로 우리들은 북극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컵을 아까운 듯이 조금씩 나누어 주어왔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틀림없이 우리들은 다른나라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처사를 정숙하게 비난할 수 있는 특별히 손쉬운 마음의 변화를 갖고있음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자신의 땅에서 계속해서 묵인되는 잔인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들의 눈을돌리려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갖고있는것도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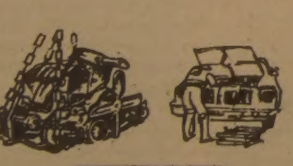
우리들이 저지르는 해악은 에스키모나 인디안 뿐만아니라 동시에 우리자신들에게 역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똑똑치 못하고 근시안적인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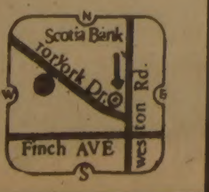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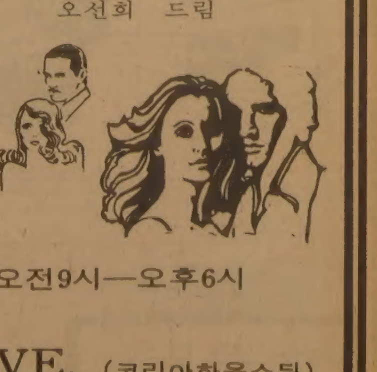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정,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대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신장개업
KIM'S BEAUTY SALON
금번 킴스미용실을 인수하여 보다나은 써비스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사오니 꼭 한번 찾아주세요.
오선희 드림
신장개업 특별봉사
남자파마 카트도 합니다.
신부화장 전문

일요일만 쉽니다. (화요일영업계속)
월—금 : 오전10시—오후8시 토 : 오전9시—오후6시
668 MAINNING AVE. (코리아하우스뒤)
532-7094(B) 438-0628 (R)

「指導層」분야별 합동教育

安武赫 사회淨化위원장 意識改革 기본方向 밝혀

자율淨化 저해요소등 除去

계층별 清廉度 수시로測定

특정企業등 유착·民願人금품수수 근절

利權·인사청탁介入·무절제私生活 추방

사회淨化위원회는 公職者와 사회지도층이 의식개혁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국민모두가 의식개혁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들 의식개혁先導집단에 대한 분야별합동교육을 4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실시하고 각종사회단체주관으로 갖가지 캠페인을 펴 참여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安武赫사회정화위원장

安武赫사회정화위원장은14일 의식개혁운동추진 기본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정부는 앞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해감에있어 이른바 특수층은 항상 例外的존재로 군림하면서 일반국민들의 의식부터 먼저 고칠것을 요구하는 獨善的방법이 아니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이 의식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부단히 제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또『각계는 각계대로 각각 자율적인 淨化를통해의식을 개혁해나가야 할것이며 정부는 이같은 自律的 정화노력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힘을아끼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安위원장은9大의식개혁실천요강의 생활화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다할것이라고 밝히고『공직사회에대한 刷新점검과분야별·계층별淸廉度측정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말했다. 그는 또『그러나 공직사회의 건전한기풍을 조성하는일은 외부의 힘에의해서가 아니라 해당기관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정화 노력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고『淨化의지가 未治하거나 노력이부족한 기관장이있다면 他律에의한 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의식 개혁운동과관련, 제2의 肅正같은 것은 없을것』이라고밝혔다.

安위원장은 특히 공직자가 ▲특정기업체나 이익단체와 유착, 불순한 거래를 일삼는 경우▲對民업무와관련, 특정民願人으로 부터 금품을 收受하는 행위▲利權업무에 개입하거나 사건, 인사청탁으로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경우▲無節制한 私生活로 인해 주의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등 不適格한 공직자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공직자의 적극적인 부패행위뿐 아니라 소극적인 부패행위도 같은 차원에서 대처해나갈것』이라며 무사안일한 공직자 ▲참의식과 소신및 책임의식이 결여된 공직자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나 官職私有의식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등은 스스로 公職에서 물러날수 밖에 없는 풍토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활주변의각종비행위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들의 허례허식이나 外國상품選好, 과다한婚禮등 호화사치로 사회적지탄을 받는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처해나갈것이며 질서의식이 체질화될때까지 교통, 행락, 商去來질서및 공중질서등을 문란케하는행위는 지속적으로 규제할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정화위원회에「不正행위신고窓口」를 설치, 운영하겠다고밝힌 安위원장은 우리몸에 배어있는 否定의식때문에 우리사회에는 아직도▲단속을 피하려고 지능적방법을 모색하거나 무사안일한 공직자▲부정거래·탈세·금품매수행위를하는 일부기업인및 부유층▲학원을 이용추구의 私企業으로 착각하는 학원非理 ▲일부학부모와교사간에 금품거래행위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각부처別 細部지침

정부가 意識改革운동을 5공화국정부의 核心과제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에따라 사회淨化위원회는 14일「意識改革추진細部計劃」을 마련, 정부各部處는 모든 정책을 의식개혁의차원에서 수립, 시행키로방침을세우고 이에따라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수립,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의식개혁운동과 관련, 部處別로 추진키로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획원=소비자보호운동활성화, 公正거래정착 ▲내무부=경범죄단속강화 ▲財務部=범국민저축운동전개、영수증주고받기 생활화. ▲법무부=[illegible]단속및 情보호법강력추진대책, 건전한고발자 보호대책、師道확립 ▲문교부=평생교육실시、 ▲商工部=不良상산품추방 ▲農水産部=식생활개선 가격표시제이행대책 ▲動資部=에너지절약 ▲보사부=가정의례준칙이행、食品개선 ▲交通部=관광·교통질서확립 ▲文公部=미풍양속선양 ▲體育部=심기장질서확립 ▲총무처=행정제도시정 ▲서울시=시민교육확대

LPG택시料 50~百원 引下

서울지역 6월부터 基本5백~5백50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의 기본요금이 오는6월1일부터 50원~1백원이 내린다.

교통부는 14일 택시연료를 LPG로 전면 교체한다는방침에따라 연료비 절감폭만큼 택시요금을 조정하기로 방침을정하고 우선 5월말까지 연료가 LPG로 바뀌는 총2만9천여대의 서울지역 택시기본요금을 현행 6백원에서 5백50원~5백원수준으로 낮추기로했다.

그러나 주행요금은 현행대로 시행한다.

교통부는 이와더불어 釜山 大邱 仁川등 대도시에서 운행되는 택시에 대해서도 연료의 LPG화가 끝나는대로 기본요금을 서울과같게 낮추기로 했다.

한편 LPG충전시설이 부족한 시·군지역의 택시요금은 현행대로 두기로했다.

교통부에 의하면 연료의 LPG화로 택시1대당 하루평균8천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또한 택시요금의 조정과함께 운전사 봉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계획이다.

내일 內務委

與野는 14일 하오 총무회담을 열고오는 16일 內務委를 소집,西大門區峴底洞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경위와 사후처리대책등을 따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民正黨당원교육에 일선행정조직이 개입한 문제가 거론됐으나 16일의 내무위에서는 이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총무회담은 또 정부가제출한 하수도법개정안과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등 계류중인 2개법안과 共有水面매립에 관한 請願등 6개청원을 처리키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국회建設委를 열기로 했다.

中共、金日成생일 묵살

개인崇拜 비판… 代表團 안보내

【東京14日=聯合】중공은 15일에 있을 金日成의 70회생일기념식에 黨과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金의 개인숭배강화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北京발 기사로 중공외무성 대변인이 이유를 밝히지않은채『金日成의 생일기념식에 중공대표단을 파견치않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이는 개인숭배를비판하는 중공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시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공은 黨의장의로 개인숭배사상을 비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급 당간부자녀들에 대한 특권대우에 대해서도 비판적 자세를 취하고있다.

金正日후계 强行 主席壇서열 3位

【서울=聯合】지난5일 개막된「最高인민회의」제7기1차회의에서 北傀정권기관의 아무런「要職」에도 기용되지않아 주목을끌었던 金正日이 14일 平壤서 金日成참석하에 열린「黨·最高인민회의합동회의」주석단에 金一다음으로 권력서열3위로 참석한것으로 北傀방송들이 이날 보도, 그의 後繼者지위를 계속강행하고있음을나타냈다.

民正 政策硏개발 中長期과제

全大統領、중간硏究 보고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그동안 民正黨 정책연구소가 마련한 각정책과제에대한 中·長期대책의 중간연구 결과를 權正達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날 權총장이 보고한 中·長期 연구정책내용은 바이러스性 肝炎예방에관한 방역대책을 비롯 인구억제정책, 식량자급문제, 경제 현안문제등이 포함돼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權총장은 보고를마친뒤 당사에 돌아와『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防疫전략도 바뀌어야한다』면서『바이러스성 간염이 1種전염병인 장티푸스·콜레라, 2종전염병인 홍역·백일해、3種전염병인 성병·결핵등 만성질환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이그 곧 아르헨再訪

포클랜드仲裁 새로운協商案 준비

【워싱턴13日AP=聯合】포클랜드위기를 둘러싼 왕복외교를 수행중인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13일밤 런던으로부터 워싱턴에 도착, 곧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떠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는 분쟁당사국인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사태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 새로운 구상이 분쟁을 해결할것으로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14일아침 레이건대통령에게 이번 왕복외교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부에노스아이레스방문등 미국의 중재 노력을 계속하기위한 준비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언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날 것인지 밝히는것이 시기상조이나 매우 빠른 시일내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蘇선 情報제공도

【워싱턴13日AP=聯合】소련은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영토분쟁이 진행되고있는 포클랜드군도를 향해 항진하고있는 영국해군함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아르헨티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美관리들이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관리들은 소련이 인공위성과 영국의무선통신을 가로채 수집한 정보자료를 아르헨티나에 넘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인대회 입장권예매처

입장권 $30

다운타운=제1여행사(649A Bloor St. W. Tor, Tel: 535-2377)

동부지역=서울식품(367 Pitfield Rd. Scar, Tel: 291-8317)
동부한국식품(1346 Kennedy Rd. Scar, Tel: 752-3819)

서부지역=한밭식품(466 South Service Rd. Missi, Tel: 274-5401)
삼복식품(2437 Finch Ave. W. Weston Tel: 743-8270)

美洲기구代表들「포」事態토의 美洲기구(OAS)회원국대표들이 13일 워싱턴서 포클랜드사태를 둘러싼 英·아르헨티나분쟁의 해결방안에대해 토의하고있다. 오른쪽 끝이 라울·키하노 아르헨티나대사。【워싱턴14일UPI=聯合】

英潛艦 포클랜드近海에

아르헨空軍 주장

【부에노스아이레스13日UPI=聯合】아르헨티나공군소식통들은 13일 수척의 영국잠수함이 南대서양 포클랜드군도근해에서 탐지됐다고 말했다.

노티샤스·아르헨티나스통신은이날아르헨티나공군소식통들을인용,이같이 보도했으나 英잠수함들이 영국이 선포한 2백해리봉쇄구역안에서 발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통들은 또 아르헨티나의對포클랜드군도 병력·장비 공수에 대한최대위협은 해대공미사일을 장비한 영국함정들이라고 말했다.

指名手配者 컴퓨터 수록

關稅廳

관세청은 지명수배자의 신속검거를위해 지명수배자를 15일까지 컴퓨터에 수록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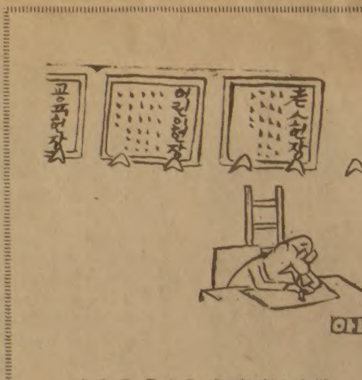
이에따라 관세청은 14일 일선세관장에게 현재까지 전국에 지명수배된자에 대한 전산입력카드를 작성, 15일까지 본청 전산과에 보내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앞으로 새로운 지명수배대상자가 생겼을때는 지금처럼 전국세관장과 각시도 경찰국장에게 지명수배를 의뢰함과 동시에 전산入力카드를 작성하여 관세청 전산과에 보낼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中央阿 암발라外相 오는21일 公式訪韓

중앙아프리카共和國외상 ·후이·제르맹·암발라外務및 국제협력장관이 盧信永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21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공식방문한다고 외무부가 14일 발표했다。암발라장관은 滯韓기간중 全대통령을 예방하는한편 金埈成부총리겸經濟企劃院장관과 命基보사장관과만나 양국간의 우호친선협력강화방안을 포함한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눌예정이다。암발라장관은 또 농촌새마을및 浦項製鐵, 蔚山공업단지와 올림픽경기장 건설현장등도 시찰할 계획이다.

社會漫評



다음은「젊은이 憲章」차례…

地平線

아진·트바·트리, 아진·트바·트리, 여기는 솔리다르노스크 방송. 우리는 구금인사의 석방, 인간의 존엄과 자유노조의 재생을 위해 싸울것입니다-. 불법화된 폴란드 자유노조가 계엄령에 항거, 지하비밀방송을 8분30초동안 했다 한다。이 자유의 소리를 들은 수만명의 바르샤바시민은 곧 등불을끔으로써 극적인침묵시위를 벌였다고 외신은전하고있다。▼소련군의 무력탄압과 공산당 압제하에서도 자유를지키기위해 不屈의 투쟁을 계속하고있는 폴란드에는 地下文化活動이 활발하다. 지하방송, 지하연극, 지하영화, 지하학교등 수두룩하다。그중에서도 외국에서 소개한 詩朗讀會라는것이 있다。지금은 캘리포니아대학교수로있는 폴란드출신 亡命詩人체스바프·미워슈는 198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폴란드인들의 고난과 용기, 인간의 회복을 노래한 詩人 미워슈는 폴란드 사람들의 자랑이라고도 한다。▼폴란드에는 지하활동을 해야할 사정이있다。獨立國家이면서도 소련과의 관계때문에 近代史, 現代史를 제대로 학교에서 배워주지 못하기때문이다。18세기의 三國分割때 겪은 帝政러시아의 봉기압제、폴란드애국자의 봉기를 학교에서 강의하지 못하는 것이다。또 2차대전시 폴란드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 소환돼 숙청된 사건、게다가 수천명의 폴란드장교들이 소련땅에서 학살된「카친의 숲」참사、소련군이 바르샤바직전까지 진격해왔을때 바르샤바시민들이 나치스에 맞서 한시가전을 벌였는데도 한발의총도 안쏴 바르샤바시민을 몰살당하게한 사건등、反蘇감정은 뿌리깊다。▼反蘇사상은 전부 지하문화로 폴란드국민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고 있는 것이다。날은 대학이란것도 있다。학교에서 못가르치는 애국심을 대학교수들이 비행기를타고 지방에 내려가 세미나형식으로 가르치는것이다。폴란드민족처럼 외세의 탄압을받아온 민족은 드물다。그만큼 저항도 뿌리깊다。솔리다르노스크(자유노조유대)가 지하에서 조직적인 항쟁을 계속할수 있는것도 이때문이다。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가 불사조처럼 타협을 거부하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쳐지는것도 시민들의 가슴에 자유와 독립심이 깔려있는까닭이다。▼빛나는 민족문화가 있으면서도 歪曲된 채 배워야하고 자유의소리 지하방송을듣고 등불끄기로 시위를 해야하는 폴란드국민의 입장은 딱하고 비창하다。멀리 뜨거운 성원을보낼 따름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세계적으로우수한 가와이피아노및 전자올갠 ★★★★

10% —30%

봄맞이재고정리대매출

기간 : 4월17일부터4월30일

○ NEW, USED, D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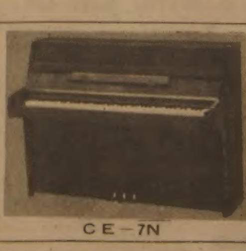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아래품목을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전자올갠

E-620

E-360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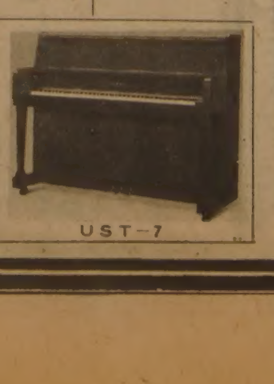
CE-7N

UPRIGHT 피아노

802-1

802-M

(Open Wainut)



UST-7

US-50

KS-3F

○ 은행월부판매가능
(1년~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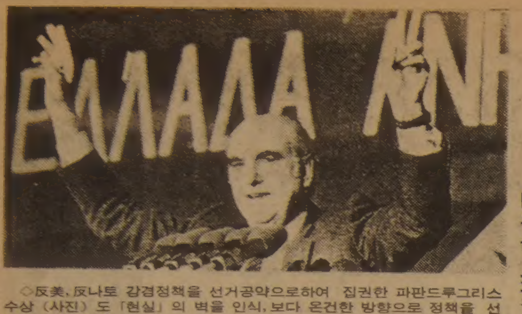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목청낮아진 그리스首相

—다급한 現實앞에 選擧때의 氣勢 한풀죽어

保守性강한 軍部에유화책
나토·EC脫退등 公約후퇴
인플레등 經濟문제시급…穩健선회


◇反美,反나토 강경정책을 선거공약으로하여 집권한 파판드루그리스수상 (사진) 도 「현실」의 벽을 인식,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시키고 있다。

지난해10월 총선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및 구주경제공동체(EC) 에서의탈퇴를공약으로내세워 선거에승리, 화려하게출범한안드레아스·파판드루수상이 이끄는 그리스사회당정부도 현실을 외면하지는 못하고있다。

파판드루수상은 요즘 전통적으로 보수세력이 강한 군부의 환심을사기위해 여러가지 조처들을 취하고있다。장교들에게 주택수당을지급하고 사병들의 봉급을 인상하는등 복무여건개선및 경제혜택부여에 중점을두어지고있다。 파판드루수상은 그가 국방상을 겸임한것, 수상취임후 거의 매일 군부대를 방문하는것등에서 군부에대한 그의신중한 태도를 보여줬다。

파판드루수상이 군부의 비위를 맞추려고드는 것은 그리스의 터키에대한 강경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파판드루수상은 국내문제가 여의치않을경우 국내외의 관심을 키프로스사태로 쏠리게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있다。 헬레니즘의 쇠퇴를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는 그의 되풀이되는 공언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터키에 대한 강경정책은 군부의 지지가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그는 군부회유책과함께 군의 요직을 자신의 측근들로 점차 교체시키고 있다。

군부가 그리스의 나토탈퇴를 반대하고있는것과 관련, 파판드루수상의 이같은 군부회유책은 공약이空約化될 조짐으로풀이된다。

EEC탈퇴 역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그런데 국민투표실시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EEC가입지지자인 카라만리스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스내의 아테네및크레타섬등 4개 미군기지의 즉각철수공약도 흐지부지되고있다。 파판드루수상은 그의 시정연설에서 기지의 관리를 그리스정부가 맡고 기지사용조건을 개선한다는 선으로 후퇴하고 있는것。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파판드루수상의 선거공약은 말의 마술사로 이름난 그의 선거전술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파판드루정권도 몇가지 분야에 있어서만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밟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랍과의 관계인데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아라파트의장을 초청한데이어 파파스펠 상무차관을 시리아및 이라크로 보내 원유구입교섭을 통해 이지역 진출을 강화하고있다。

다음으로 소련과의 유대강화정책을 들수있는데 소련의 폴란드사태 개입에대한 나토의 對蘇비난결의에 따르지 않은것이 대표적인 케이스。 기업의 사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는 미국의 석유재벌 엑손社의 그리스子회사인 에살로니키 정유회사의 국유화계획을 발표하기도했다。최근 수년간 25%안팎의 높은 인플레에 시달려온 그리스정부의 최우선과제는 경제안정。 파판드루수상의 예상밖의 온건노선은 외교문제에앞서 우선 발등의 불부터 끄고보자는 그의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林鍾乾기자】

美、臺灣에 軍事부품판매

議會에 承認요청

航空機用등 6천만弗규모

【워싱턴13日AP=聯合】레이건美행정부는 중공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臺灣에 대한 6천만달러어치의군용항공기부품및 무기부품판매안을 의회에 공식제출、승인을 요청했다고 13일 발표했다。

美국무성과 국방성은 이날 공동발표문을통해 臺灣에 대한 이같은 군사판매안이 臺灣보유의 미제항공기및 무기를 계속 유지시키는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기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로인해 중공과 대만의 군사력균형이 변경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미행정부의 對대만 군사판매안제출에따라 미의회는 앞으로 30일이내에 이계획에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이기한내에 거부결정을 내리지않을경우 이계획은 자동승인된것으로 간주된다。

對臺灣 무기販賣에 中共 對美대응태세

【北京14日UPI=聯合】중공은14일 군사부품의 對臺灣판매승인을 의회에 공식요청한레이건美행정부의 조치에 대응할태세가되어있다고선언했다。

중공외무성대변인은 이날 강경한 어조의 성명을 통해 레이건행정부가 6천만달러상당의 對臺灣 군사부품판매계획을 정식통보한데대해 중공정부가 반응을 보일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중공정부는 이에대한 논평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중공이 언제 공식반응을 보일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싱가포르 유일의野議員 제야레트남

議會서 쫓겨날판

"議員특권侵害 했다"이유 執權黨서 재판회부 企圖

「74對1」의 고독한 투쟁…노동자 聲援

◇제야레트남의원

싱가포르의 유일한 야당의원인 J·B·제야레트남 의원이 정부정책을 공격하려고 일어설때면 의원석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야유와 조소가 일곤한다。 74대 1이라는 중과부적의 열세에 놓여있는 백발의 제야레트남 의원(57)은 고독한 야당의원의 역할이 16년간 의회의 도전없이 통치해온 정부에 대해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일임을 알고 있는데 정부는 그를 의회로부터 완전히 몰아내려는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도계의 제야레트남 의원은 6개월전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당선함으로써 李光耀수상의 집권국민행동당(PAP)을 놀라게 했다。

집권 PAP당이 노동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제야레트남의원과 그의약소한 노동당에 패배했다고해서 권력에 위협을 받은것은 물론 아니었으나 져도 곱게 진게 아니라 떳떳치 못하게 진게 문제라고 싱가포르의 한 언론인은 꼬집었다。

제야레트남의원은 정부가 ▲자기 전임자가 사용하던사무실을 쓰지 못하게했고▲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지체시키거나 거절했으며 ▲국영언론을 통해 비방선전을했고▲당원 2명을 구속하고 그들이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자백하는 장면을 TV로 방영케 했다는등 비위사실을 열거했다。

노동당은 자금이없고 당사도 없고 의원후보로 출마할만한 자격을 갖춘 당원도 거의 없었다。

노동당의 조직상의 취약성은 제야레트남의원이 의회에서의 발언때 정부정책에 대한 질의를 뒷받침할 조사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제들을 폭넓게 언급하기때문에 그는 어느한분야에 집중할수가 없었던것。

아직도 20명가량의 주민이 그를 만나 개인적인 불평을 털어놓으려고 줄을 서서기다리고있었다。『일부 중류층사람들은 제야레트남의원을 별볼일 없는 인물로 볼지 모르나 노동자들은 그를 영웅시하고 있다。 그는 정부에대해 질의를벌이고있기때문』이라고 다른 군소야당수인 치암·세·통씨는 [illegible]했다。 통씨는 제야레트남의원이 당선된후 정부가 공공요금이나 주거비의 대폭인상을 삼가왔다고 지적했다。

親정부지인 스트레이츠타임즈조차도 집권당에 대해 「지나친 공격을 퍼부으면약자인 제야레트남의원에게더 많은 동정을 안겨줄뿐」이라고 경고해야 했었다。

그러나 그런 경고가PAP당이 의원특권 침해혐의로 제야레트남의원을 재판에 회부하려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아직 심의일이 결정되지않은 이동의안의 내용은 제야레트남의원이 자기 법률사무소에서 취급한 소송사건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의회규정을 어겼다는 것。

제야레트남의원은『재판결과는 보지않아도 뻔하나』이사건이 법정에회부되면 적어도 논란거리는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야레트남의원이 현행법에 따라 1년이상의징역이나 1천달러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면 의원자격을 박탈당하게된다。

제야레트남의원은 자신이 의회에서 쫓겨난다해도 노동당은 다시 실시될 보궐선거에서 또 빈자리를 메우기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싱가포르=UPI】

印尼 野黨선거유세장서 의문의 사고

버스大破 8명死亡

【자카르타14日로이터=聯合】자카르타에서 13일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회교계 야당 개발통일당 (PPP) 선거유세중 청년8명이 죽고 버스17대가 반파 또는 완파됐다고 인도네시아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13일의 선거유세에 약40만명의 청중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집권 골카르당 성명은 일련의 예기치않은 사고가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말했으나 이에관해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인니국가보안사령관 수도모제독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PPP 선거요원들이예사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위법사태가 계속될 경우 PPP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수도모제독은 청년 8명의 사망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군소식통들은 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外信안테나

◆차우세스쿠 北京도착=니콜라이·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64) 이 중공을 공식 방문하기위해 13일 北京에 도착、黨주석 胡耀邦을비롯한 중공지도자들과 회담을 시작했다。

지난64년이래 4번째로 중공을 방문한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이날 北京도착후 胡耀邦과 1차회담을 갖고 주로 쌍무문제를 논의했다고관영 新華社통신은 전했다。【北京=AP】

◆日、8월15일을戰歿者추모일로=일본정부는 13일 각의에서 2차대전 패전일인 8월15일을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로 정식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8월15일에는 정부주최의 공식적인 전몰자 추도행사가 개최된다。【東京=聯合】

◆美輸送機、터키서爆發추락=승무원 8명을 비롯 27명이 탑승한 美공군의 C130 허큘리스수송기가 13일 하오 8시30분 터키의 앙카라 동부 3백20㎞상공에서 공중폭발, 추락하는 바람에 탑승자전원이 사망했다고 앙카라주재 美대사관이 밝혔다。【앙카라=UPI】

◇새 水壓式 채킷 중량 2톤가량의 차량이면 힘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들어올려 펑크난 타이어등을 쉽게 교환할수 있게하는 새로운 水壓式 재킷。英國의 TI트랜스포트이퀴프먼트社가 개발했다。【LPS=聯合】

金日成 세습 企圖등 규탄

東京서 8백명참가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民團東京본부 (團長李鎭浩) 는 14일 하오4시 東京시바 (芝) 공원에서 민족화합민주촉진대회를 열고 金日成王朝의 세습을 규탄하는한편、북한은 평화통일을 실현키위해 남북대화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8백명의 교포가 참가한 이날 대회는 북한이 강제수용하고있는 10만명의 반체제사상범을 즉시 석방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키위해 한국이 제의한 민족화합민주평화통일방안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며 시바공원에서 히비야(日比谷) 공원까지 약 2㎞를 시위했다。

이스라엘의 對팔정책 항의

回敎國들 일제 總罷業

사우디등 13국 政府주도로

한국에도 큰영향 우려

어제 하룻동안 官公署·기업등休務…공항폐쇄·通信차단

◇北京시내 행진하는 中共 소년단원들 中共의 소년·소녀단원들이 北京시내를 행진하고 있다。中共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조기교육에 열을올리고 있다。【北京13日UPI電送=聯合】

【매나마13日=聯合】회교국들은 이스라엘의 對팔레스타인 정책에 항의하여 14일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이번파업은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같다。

부활절 기간인 지난 11일 미국계 유태인이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에서 아랍인들에게 무차별사격을가한데 따른 팔레스타인인들의 對이스라엘항거를 지원하고 이들과의결속을 다지는뜻에서 14일 하룻동안 정부주도하에 총파업을 단행키로한 회교국들은 세계최대의 원유수출국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등 페르시아灣산유국들과 이란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수단 지부티등 13국에달하는데 이중 사우디를비롯한 페르시아만 산유국들과 한국은 건설、무역등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밀접한연관을 맺고있는실정이다。

이들국가들은 이날상오6시 (한국시간 정오) 부터 하오6시까지 12시간동안 모든 관공서와 은행、그리고 일반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문을닫고 공항과 항공로를 폐쇄했으며 외부와의 통신연락도 단절시키기로 했는데 이사태로 대한항공 (KAL)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여러 한국업체들도 문을닫거나 열더라도 개점휴업상태를 면치못할것같다。

회교국들의 총파업을 하루앞둔 13일 中東주재 한국대사관들은 거의 모두 주재국정부의 방침에따라 14일 대사관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국무역관과 많은 한국무역상사 업체들도 문을 닫기로했는데 宋정한駐바레인대사는 이날 바레인외무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받지는 않았으나 주재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에서 대사관도 14일하루 문을닫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유엔安保理 긴급회의 개최

回敎寺院 銃器난사등 논의

【유엔13日AP=聯合】유엔安保理는 하산 모로코王과 회교협의기구 (ICO) 34개국의 요구에 따라 13일밤 (한국시간14일새벽) 긴급회의를 소집、지난11일 한 미국계유태인청년에 의해 저질러진 알·아크사 사원총기난사사건을 비롯한 이스라엘 점령지구의 『극히 중대한 상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자이레출신의 카만다·와·카만다安保理의장은 이날 다른 이사국대표들과 접촉을 가진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어 공개회의에 들어갔다。

反이暴動 流血化

가자地區 示威군중들에 發砲

【예루살렘13日AP=聯合】이스라엘점령 아랍영토에서의 反이스라엘파업과 시위가 연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軍은 13일 가자지구의 한 난민촌에서 시위를 벌이던 군중을 향해 發砲, 7세의 팔레스타인소년 1명이 죽고 약50명의 팔레스타인人들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이 밝혔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회교국들은 이같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항의하고 팔레스타인人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위해 14일을 총파업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하룻동안 모든 公·私업무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反이스라엘데모와 파업은 지난11일 예루살렘의 마운트寺院에서 한 미국계 이스라엘人이 회교도들을향해 총기를 난사、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사건에 항의하며 일어난것으로 東예루살렘과 요르단강서안 가자지구등 이스라엘점령 아랍영토들을 사실상 완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있다。

이스라엘軍은 이날 가자지구와 인근 난민촌들에서 수천명의 팔레스타인人들이 경찰에 투석하는등 데모를 격화시키자 군중들의 발을 향해 發砲, 12일의 5세소녀에 이어 13일에도 팔레스타인소년 1명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은 부상한 50명가운데 절반이상이 총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軍警의 곤봉등에 맞아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있은 이스라엘軍과 팔레스타인人들간의 유혈충돌로 이스라엘軍 4명이 부상한것으로 이스라엘軍대변인은 밝혔는데 이중2명은 데모군중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중태인것으로 알려졌다。

海外토픽

새 컴퓨터打字機

★中共서 臺當6천5백달러

漢字를 보다 빠른 속도로 찍어낼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타자기가 北京에서 선을보이고 있다。 이 타자기는 漢字의 기본자획을 표시하는 5개의 키를 갖고있는데 이를 개발한 사람들은 漢字를 쓸수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타자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구형한자타자기는 타자수가 수천에 이르는 상용한자에서 한자씩을 일일이 찾아내야 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컴퓨터타자기는 타자수가 치는 자획을 판독、이를 TV화면에 비추며 타자가 끝나면 글자가 컴퓨터에 의해 종이위에 찍혀 나오도록 만들어졌다는것。【北京=AP】

波무용단 集團亡命

★캐나다 공연중 11명탈출

캐나다에서 공연중이던 한 폴란드무용단의 단원 11명이 캐나다에 집단망명했다고 캐나다 이민성이 발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위해 망명한 것이라고 망명 이유를 밝힌 이들중에는 세계순회공연을 떠나기에 앞서 가족들과 망명가능성에 관해 사전에 협의한 사람들도 꽤 있다。【터론토=聯合】

◇낸시女史와 스파이더맨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의 부인 낸시女史가 12일 부활절축제를맞아 백악관뜰에서 스파이더맨과함께 포즈를취하고있다。【워싱턴13日UPI電送=聯合】

成績表변조 醜態

★미스나이지리아 박탈위기

작년11월 미스 나이지리아로 뽑힌 토쿰보·오나누가양이 미의 여왕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스 나이지리아의 타이틀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고 미스나이지리아 선발대회를 주최했던 라고스의 데일리·타임즈지가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바단대학 재학생이었던 오나누가양은 자신의 시험성적표를 변조했다는 것인데 오나누가양은 현재 美國에서 구강외과학을 공부중이다。【라고스=AP】

메아리

日本의 주간지 「슈칸·아사히」의 N기자가 지난 2월 어느날 朝總聯간부를 만나 이런 질문을 했다。『당신들은 金正日의 생년월일도 정확히 모르죠?』

朝總聯에서는 작년 (81년)에 金正日이가 만40세가 된다고 하여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치렀는데, 올해 다시 「만40세」가 된다고 같은행사를 서둘렀기 때문이다。만40세가 두번이나 찾아오는 별난 인물을 두고 N씨는 당연한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그 朝總聯간부의 대답 또한 별나다。

『革命하는 사람에게는 나이나 家族따윈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이」나 「家族」에는 관심이 없어야할 北韓의 「金日成王朝」에서는 現在 어느 王朝나 공산국가도 뺨칠만큼 나이와 家族을 가리고 또 기리고있다。

오는 4월15일을 향해 북한에서는 상식으로 생각할수없는 광란극을 벌여왔다。金日成의 70회 생일을 맞는다고 작년6월부터 「생일축하 3백일운동」을 내외에서 부산하게 벌여온 것이다。 걸핏하면 북한의 높은 자리에 있는자들이 외국을 돌며 金日成생일에 손님으로 와서 축하를 해달라고 구걸까지했다。

苦盡苦來

그런데도 中共에서는 黨이나 政府대표단을 편성해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東歐등 다른 공산국가도 공식하객단을 파견치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朝總聯은 내부의 반발을 누르고 「충성의 선물운동」을 벌여 金日成에게 경축금 50억엔을 모아 이것으로 각종기계、합성수지、심지어 사이다、화장지까지 사서 보냈다고한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3월 북한 주민에게 생일 선물을 나누어준다고 毛布를 3백만장이나 사들였다니 덮을것도 변변히 없었던 그곳주민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앞선다。

주민을 10만5천명이상이나 외딴곳에 强制收容하고 통나무집에서 덮을것、먹을것조차 없이 가뒀으면서도 온세상을 향해 자기생일을 축하하라고 법석을 떠는 金日成을 두고 우리는 뭐라해야할는지。극도의 個人崇拜에 共産國家들마저 침을 뱉는 實情인데 이젠 아들金正日까지 숭배하도록 강요하며 권력세습을 하겠다고 바람을 일으키는 그들에 대해「축하」를 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북한주민은 무슨 40회다 70회다하고 떠벌리는 金一家의 생일잔치를 볼때마다 「苦盡苦來」를 지겹게 되씹을것이다。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½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샾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샾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샾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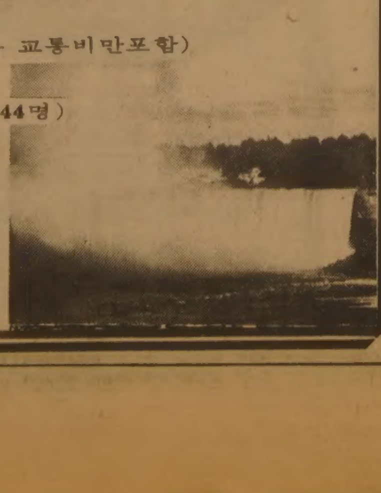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노년회 나이아가라 관광안내

움추렸던 추위가 다지나가고 이제 훈풍의 계절이 왔읍니다. 꽃소식과 함께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항상 폭포만 즐기던 우리들이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며 곳곳을 두루 살피는 즐거운 여행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사오니 함께오셔서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원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5월 14일 (금) 오전10시 부터
5월 15일 (토) 오후8시까지
장 소 : 나이아가라
회 비 : 일인당28불 (호텔요금과 교통비만포함)
출발장소 : 한인회관앞
마 감 : 5월7일 오후4시 (선착순44명)
※ 자세한 문의는 755-8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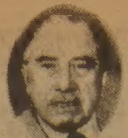
한국노년회
회장조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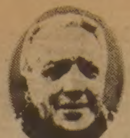
A·B·C가 風雲을 左右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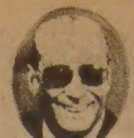
植民地 후유증…곳곳에 國境분쟁

貧富差에 成長못해도 軍備 경쟁

에레라 베네수엘라대통령


피노체트 칠레 대통령


갈티에리 아르헨대통령


피게이레도 브라질대통령

經濟難→소요→게릴라→탄압→쿠데타

不安의 大陸…南美

최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제도 침공으로 야기된 영국·아르헨티나간의 일전위기는 오늘날 南美대륙이 겪고있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단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포클랜드를 침공하기 3일전만 해도 아르헨티나군사정권은 76년 집권한이후 최악의 반정부대규모 유혈데모를 맞고있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정권은 경제정책실패로 야기된 정정불안을 포클랜드침공이란 쇼크요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간과할수만은 없다. 늘 불던 반정데모가 곧 포클랜드점령을 축하하는 시위로 변해버린 현지보도는 그런 일면을 반증해주고있다.

지난10년간 최고 연4백50%의 인플레에 시달린 아르헨티나경제는 80년 겨우 50%선에서 안정되는듯 하더니 지난해 다시 1백50%(공식통계 1백31%)로 껑충 뛰었다.

5년전 5백소하던 담배한갑값이 현재 5천페소로 약1천배올랐다. 이는 사실 하나로 오늘의 아르헨티나경제를 쉽게 이해할수 있다.

실업률도 작년말 6%에서 12%로 뛰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당국은 고질적인 경제파탄에서 과감히 탈피하기위해 이른바 「국가재편과정」을 수립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르헨티나인들은 2차대전후 아르헨티나를 南美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게 한 후안·페론 대통령 시절만을 동경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현재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시련을 한결같이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南美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파탄↓반정소요↓좌익게릴라테러↓강경탄압↓쿠데타란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최근 아르헨티나정부가 취한 임금동결조치는 아르헨티나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이런 경제적 혼란은 현 정권이 공약한 민주화일정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南美의 지역안정 기반을 흔들고 있다.

南美제국의 평균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77~80년동안 5%에서 지난해 2%로 급격히 떨어졌고 대외부채도 1천1백10억달러로 무거운 이자부담에 억눌려있다. 베네수엘라만 빼고 모두 우익군사정권일색인 南美제국은 경제

최근들어 미국의 영향권에서 빠져나오려는 자각과 빈부의 극심한 격차에대한 불만이 커져 소요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2백여년전 식민열강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불분명하게 그어진 각국간의 국경선때문에 한 세기넘게 잠재되어왔던 국경분쟁은 자원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곳곳에서 내연하기 시작하고있다. 이와함께 활발한 석유탐사작업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대산유국으로 발돋움함에따라 지역각국간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안정질서는 더욱 위태해져 가고있다.

국경분쟁의 하나로 남아있는 지역은 1백년전 전쟁을 겪었던 볼리비아-페루-칠레의 3각 국경지대로 언제 활화산으로 변할지 모른다.

아마존유역의 석유매장가능성 예시, 지난 78년 페루와 에콰도르가 싸움을 했지만 아직도 위기는 감돌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남부군도 및 영토권을 놓고 맞붙고있고 볼리비아와 브라질,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우루과이와 브라질등 국경이 맞닿는 곳마다 분규는 싹트고 있다. 한편 남미의 헤게모니를 쥐려는 A(아르헨티나)와 B(브라질)의 두대국의 대결은 갈수록 날카로와지고 있다.

무기산업에 일찍 눈뜬 브라질은 80년도 10억달러이상의 무기를 南美각국과 중동등 제3세계에 수출, 제3세계1위, 세계7위의 무기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가스가벨 장갑차에서 공대공 및 지대공미사일, 초음속 경폭기등까지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은 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면서 제3세계권의 강자로 군림하려고 하는반면 아르헨티나는 아직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엘살바도르 정부군을 돕고있는등 서로 저지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A와 B가 모두 현재 민주화일정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중 일국이 민주화를 먼저 달성할경우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게 뻔한것.

브라질의 군비증강에 맞서 아르헨티나는 현재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A와 B뿐 아니라 석유수출로 남미제1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미국으로부터 F16 최신예전폭기의 대량구입을 서두르고 있어 남미에서의 세력다툼은 분쟁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崔海雲기자】

◇이 병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포클랜드 군도를 점령한 아르헨티나 부대의 한 병사가 부활절인 지난 일요일 텅빈 성당 안에서 철모를 벗어든채 외롭게 홀로 서있다。【AP】

축구·복권·탱고의 아르헨티나

現地에서 2年半 거주한 辛炯昌씨의 印象記

◇『축구와 복권과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할수있을까』라고 辛炯昌씨는 자신의 체험을 전제로 의문을 말한다。(사진은 아르헨티나 국회의사당앞에 선 辛씨)

지난79년6월부터 81년말까지 2년반동안 해외개발공사 아르헨티나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돌아온 辛炯昌씨(46·현 해외개발공사 교육원장)는 아르헨티나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가지를 「축구와 복권과 탱고」라고 말했다.

정열적이고 낭만적이며 일하기보다 놀기를좋아하는 아르헨국민성이 이 세가지 속에 응집되어있다.

이런 국민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부터가 걸맞지 않는것 같은 느낌이라고 辛씨는 말한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축구라면 열광한다. 볼이 있으면 또잔디만 있으면 어디서건 공을찬다. 국민의 단결이 축구를통해 이뤄진다.

아르헨에서 국기를흔드는 행사는 축구밖에없는것같았다고 辛씨는 말한다.

아르헨티나에선 노름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복권만은 정부의 권장하에 성행되고있다. 높은

戰爭모를듯한 樂天…英과는 舊怨

少數유태系가 商權…富를 빼돌려

인플레를 잡아보려는 정부의 안간힘으로 흑이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1백만페소짜리 지폐를 찍어낼 정도다.

인플레는 이나라의 화폐가치를 형편없이 떨어뜨려 지난해11월에는 換率이 1달러에 1만5천페소까지 떨어졌다.

아르헨티나도 소수유태인이 商權을 장악하고 있는데 번돈을 스위스등 외국은행에 빼돌려 국내경제회복을 더디게하는 요인이되는것 같다고 辛씨는 풀이했다.

포클랜드사태를 누구보다 관심있게 지켜보고있는 辛씨는 문득 과거 아르헨과 칠레사이에 국경을 확정지을때 영국이 칠레편을 들어 아르헨남단의 3개섬이 칠레영토로 편입되고 말았다는 역사의 기록이 떠올랐다. 피톤, 누에바, 레녹스등 이들 3개섬은 국제적으로는 칠레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에는 자국영토로 표기되어있을 만큼 아직껏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포클랜드군도의 풍부한 새우어장, 석유부존 가능성등이 무력점령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나 근원을 파고들어가면 이 해묵은 감정도 작용했음직 하다는 辛씨의 풀이다.

辛씨는 아르헨이 전쟁을모르는 나라라는 것은 1、2차세계대전에 끼어들지 않았던 것에서 한예를 찾을수 있다고했다. 아르헨은 이전쟁의 와중에서 교전 양진영에 자국의 풍부한 식량과 육류를 팔아 큰돈을 벌었다. 1943년의 군사혁명으로 페론이 집권한 이후 59년 쿠데타에 의해 페론정권이 붕괴되기까지 16년간이 아르헨티나로서는 가장행복한 시기였다.

엄청난 인플레로 고민…"페론時代가 행복"

페론은 곡물과 육류를 팔아 쌓은 國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폈다.

아르헨국민들의 낙천적인 국민성도 이때의 흥청거림에서 연유했을 것이라고 辛씨는 말한다.

2차대전 종전후 아르헨티나가 쇠잔의 길을 걷게된것은 그들의 거의 유일한 자원인 곡물과 육류의 판매시장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빼앗긴데서 비롯됐다.

재정 궁핍에 따른 복지의 축소는 국민들의 불만과 함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쿠데타의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볼수있다는것이다.

南美의 ABC는 아르헨과 브라질 칠레등 3강을 가리키며 이중에서도 아르헨이선두주자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등 유럽계 이민들이 세운 아르헨티나는 인구 2천8백만명중 97%가 백인이고 또 그중95%가 가톨릭이다.

辛씨는 아르헨에 머물동안 관광객을 제외하곤 거의 흑인을 만나보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것은 中南美나 북부 南美 여러나라의 경우와는 판이한 현상이다.

【林鍾乾기자】

美와는 愛憎의 2重奏

經濟密着이 오히려 경계심만

美의 「保護정책」불구 脫美노려

아르헨티나가 지난 2일 영령 포클랜드군도를 강점했을때 가장 당황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아르헨티나는 OAS(미주기구) 동맹국으로 미국의 對남미정책의 기둥이 되는 나라이고 영국은 혈통과 역사로 맺어진 전통적인 우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몬로·독트린에서 보듯 西半球의 남쪽 남미대륙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고있다. 東歐圈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소련이 자국의 영향력행사에 차질을 가져오는 폴란드사태에 군사개입도 불사한다는 태도를 보였듯이 미국의 남미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쿠바 미사일위기를 치른 60년대초부터 미국은 동서대결의 불티가 라틴아메리카로 번지는일이 없도록 대응보호하는 정책을 일관해서 추구해왔다.

그러다가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선후 쿠바를 전진기지로한 소련세력의 침투저지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더욱 강조됐다.

레이건행정부는 카터의 인권정책으로 소원해진 남미제국과의 관계회복을 추진하고있으나 이제남미제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다.

미국은 남미제국에 소련세력의 팽창을 막기위한 동서대결의 전열정비에 역점을 두고있으나 남미제국은 한산은 北美의 미국이 못사는 南美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있다는 南北대결의 차원에서 보고 실리를 추구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 보복으로 80년 [illegible] 소련에 [illegible] 밀공급국이 되었으며 브라질은 최대의 콩공급국가가 되고있다. 남미제국은 이제 미국의 우방이 되기보다는 비동맹의 제3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있다.

포클랜드분쟁을 일으킨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우라늄공급을 거부한뒤 소련과 우라늄공급계약을 맺고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등 소련세력과 차츰 길을 터가고 있다.

미국의 남미정책에 주요파트너로 부상하는 브라질은 카터정부의 인권시비에 반발, 지난77년 미국의 군사원조를 거부한이래 무기산업과 수출개발로 남미의 강자로 등장했으며 아프리카、아시아、중동등 제3세계국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브라질은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않고 미국의 엘살바도르정책 지원요청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브라질은 또 미국유조선의 반이상이 통과하는 南대서양항로보호를 위한 南대서양조약을체결하자는 레이건행정부의 제안도 거부했다. 우루과이、볼리비아、칠레등 남미국가도 레이건의 엘살바도르정책에 찬동하지만 다른분제에있어 비산유국인 이들도 아랍산유국의 눈치를 살피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남미국가의 재정과 금융의 제1의 공급국이며 최대의 투자를 하고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남미국가들은 미국을 「멀게도 가깝게도」하지않으려는 입장이다.

심리학자들도 북부의 거인 미국과 남미국가를 「사랑과 증오의 관계」로 정의한다. 「사랑」은 미국독립이 남미제국독립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그동안 미국이 이들국가에 많은 원조를 베풀었기 때문. 증오는 미국이 다국적기업을 앞세워 남미시장을 독점 지배해왔으며 CIA를 통한 정부전복등 내정간섭을 하는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對남미정책은 이같은 역사적 배경과 국제환경의 변화때문에 딜레머에 직면하고있다.

【申相碩기자】

紛爭의 씨앗은 列強이…문명과 野蠻·축복과 咀呪가 共存

南美의 歷史·現況을보면

땅은 富者에 사람은 가난

지구상에서 「사람은 가장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땅」 넘어가가 라틴 아메리카다. 문명과야만, 천국과 기름진 땅, 열대와 온대로 축복과 저주를 함께 받은 넓은 대륙이다. 이 땅을 유럽열강은 2백년이나 지배했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는 BC 1천년경에 발생한 인디언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있었다. 멕시코의 아즈텍과 유카탄의 마야, 남아메리카의 잉카문명이 그것이다.

역사가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2천년前 베링海를 건너온 아시아 몽고族의 후손들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몽고族들의 일부는 北美에 정착을 했고 나머지는 멕시코, 카리브海의 도서, 남아메리카대륙으로 진출, 지구상의 최남단 주거지역인 티에라 델 푸에고까지 정착했다.

유럽인에 의해 아즈테크, 잉카제국의 구은 산해되고 찬란한 문명은 산산히 부서졌다. 정복자가 가는 길에는 항상 기독교의 성직자가 수행했다. 이들은 정복된 땅을 平定하는 정복자의 무기로 이용됐다. 라틴아메리카는 이들에 의해 기독교 대륙이 됐다.

16세기 1백년 동안에 라틴아메리카의 정복은 완료됐다. 스페인인들은 카리브海의 모든 섬들을 점령하고 서둘러 南美의 西해안을 따라 南進했는데 반해 페드로·알바레즈·카브랄등의 포르투갈 정복자들은 안데스 東쪽을 장악했다.

신대륙의 정복 경합으로 고조돼 가던 스페인 포르투갈 사이의 긴장은 당시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주선한 토르데실라스조약으로 눈에 보이는 충돌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프랑스 네덜란드가 브라질해안을 반복적으로 습격, 南美대륙의 어깨를넘었다. 한편으로 영국은 카리브海 도서쟁탈을놓고 스페인과 전쟁을벌이고 승리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王은 이거대한 땅덩어리를 정복자, 巨商, 공훈을세운 귀족들에게 하사했다. 이들의 뒤를따라 수많은 이민이 줄을이었다.

이들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南美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현저한 혼합사회가 됐다. 브라질의 삼바, 바루크의 흥겨운 음악은 아프리카의 풍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대륙에는 식민귀족이 등장했다. 식민귀족들은 식민지의 경제는 외면한채 母國을위해 최대의 富를짜냈다. 이런 식민정책이 오늘날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초래해 놓았던 것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 이들의 자유에 대한 갈구를 더욱 자극했고, 볼리바르, 호세·데·산·마르틴등 수많은 영웅들이 도처에서 발호했다.

이들의 당초 구상이던 라틴 아메리카의 통일국가건설은 좌절됐으나 1822년무렵 신대륙은 母대륙으로부터 거의 독립을 마쳤다. 그러나 독립전쟁의 피비린내와 전쟁과 통일국가 성립의 실패는 향후 오늘날까지 라틴·아메리카대륙을 정치불안의 땅으로 만드는 씨앗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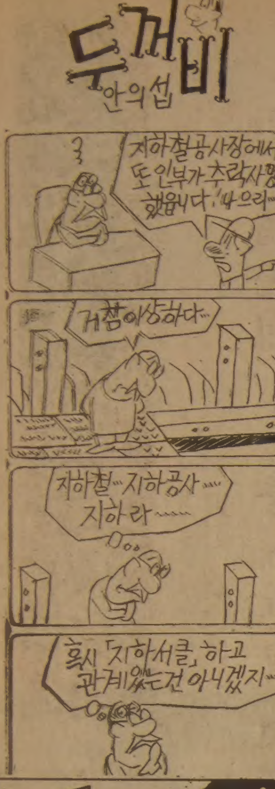
【崔相鎬기자】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팰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탁구협회임시총회
변경공고
—시 일: 4월25일(일) 오후7시
—장 소: 클링톤하우스
—연락처: 총무 김동천 243-0523
※ 4월24일(토)에서 25일(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사오니,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재캐나다탁구협회
회장 정영모



釜山서도「지하철 超非常」

서울 峴底洞 폭발사고에 충격… 慘事예방作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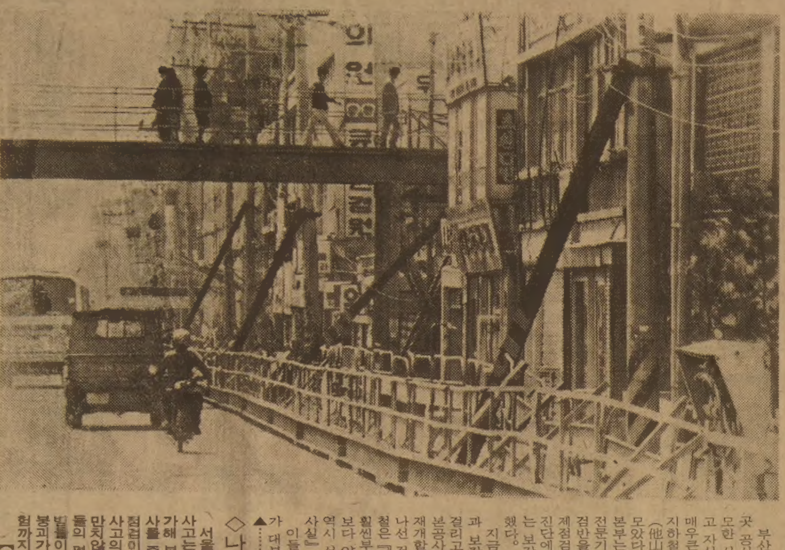
모든 工事중단 전문가動員 安全점검

바닥물 침투 흙벽崩壞 빈발

위험한 복공판 곳곳에 도사려

서울 지하철공사장의 폭발붕괴충격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釜山이동독자부=方旼俊기자】 서울 峴底洞 지하철공사장에 대형사고가 나자 부산의 여러 지하철공사장은 그날로 지하발파작업을 중단했으며 11일부터는 다른 일체의 복공사마저 중단한채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고있다.



◇나뒹구는철제빔 ▲서울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는 부산에도 큰충격을 가해 부산지하철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안전점검이 한창이다. 그러나 사고의소지는 부산에도 만만치않다는게 이곳 전문가들의 평가. 큰길가에 철제빔들이 전선주에 방혀있어 붕괴가 나면 감전사고의위험까지 안고있다. 【부산=朴泰弘기자】

부산지하철 관계자들은 이곳 공사장에는 서울같은 무모한 사고가 나지않을것이라고 자신하고는있으나 충격은 매우큰듯『서울사고는 부산지하철공사의 좋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부산지하철본부는 서둘러 대학교수와 전문기술자들을 동원, 안전점검반을 편성, 각공구마다 일제점검을 하고있고 이들의 진단에따라 모든 위험지점에는 보강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금일정으로는 안전진단과 보강작업에만 7~10일이 걸리고 지하의 흙을 파내는 본공사는 빨라야 10일후에나 재개할 방침인데 안전점검에 나선 전문가들은 부산의지하철은『공사경험이 서울보다 훨씬부족한데다 지반이 서울보다 약하기때문에 사고위험이 서울보다 오히려 큰게 사실』이라고지적하고있다.

이들은 이곳의 지하철공구가 대부분 해안매립지대로서 지하수는물론 바닷물이 직접 침투하는등 서울과는달리 복공판침하와 흙벽의 붕괴위험이 큰것으로 나타나 이에대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구간에서는 부근도로의 균열이있었고 침수로 흙이무너져내린는 사고가 빈발했으며 복공판과가드레일등 공사조물도 안전을 외면한채 시설된곳이 그대로있다.

지금도 1~2공구인 西面로터리 부근의 인도는 대부분 5~10cm씩 내려앉아 도로변 건물과 축대등에 금이가있으며 지난5일에는 범내골로터리 부근에서 침수를 방치한채 토공작업을 벌이다 흙이 무너져내려 다시 흙을 메우기까지했다.

한일은행 釜田洞지점의 경우 자하철공사로 인도가 내려앉는바람에 틈바닥이 금이 가는등 붕괴위험을 안고있다.

또 東萊區巨淸洞 蓮山로터리, 楊亭로터리등 곳곳의 복공철판의 이음새가 허렁하고 표면이고르지못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는 실정.

부산지하철공사를 가장위협하는 큰 지점은 1~1구간인 凡7호광장부근과 西面로터리부근의 1~2공구。 지질이온통 점성이약한 충화토인데다 수도관들이 너무낡아 누수가계속되는지역이다.

이밖에 楊亭복근공구 蓮山로터리의 1~7공구는지하수가 솟아올라 이를막는데 애를 먹고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공구는 그래도 나은편이고 앞으로 공사관을벌일 자유시에서 忠武洞에 이르는 6km장가 가장 고통스런 공구에해당한다. 공구전체가 매립지여서 해수의침투와 시종 싸워야할 지역인데 건설본부는 해수침투를 막기위해 약액(藥液)을 주입한는 그라우팅공법과 특수고압도제인 U형라센(Lassen)6파일을 이용할 작정이다.

지난해6월에 착공한 부산지하철 1호선은 靑龍洞에서 九德운동장까지 25.3km로 1단계인 靑龍洞에서 凡7호광장까지 16.1km는 오는84년6월 완공예정이며 나머지 구간도 86년7월까지는 완공예정으로 경하고있어 비교적 긴공사기간을 두고있다.

10살 主人딸 유괴

가정부가, 金品도 훔쳐

【木浦】한약방집에서 일하던 10대가정부가 55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뒤 10살된 주인의 딸을 유괴해달아난뒤 3일째 소식이없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木浦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2일하오 8시30분께 木浦市南橋洞36 新南原한약방 주인李賢基씨(41)집에서일하던 가정부 金모양(18·新安郡岩泰面)이 현금35만원과 금반지, 금목걸이, 시계등55만원상당의 금품을훔친뒤 李씨의 3녀 智惠양(10·木浦北국교3년)을 데리고 달아났다는것.

金양은 1개월전 木浦시내를 배회하다 李씨집에 가정부로 일해왔다.

경찰은 金양이 최근 岩泰面고향에있는 남자친구와 전화연락을 자주했다는 李씨의 말에 따라 불량배가 개입된 유괴사건으로 보고 1m52cm키에 짧은 머리의 둥근 얼굴을 한 金양을 수배했다.

滿船어선 침몰 선원 7명失踪

【東草】14일 상오5시30분께 강원高城郡竹旺面加津里앞 1마일해상에서 巨津항소속 멸치잡이어선 해성호(19톤·선장吳元在·47·高城郡巨津邑巨津3里5班)가 만선으로 귀항도중 무거운 어획량을 견디지못해 침몰, 타고있던 선원10명중 7명이 실종됐다.

이 배는 13일하오5시께 멸치잡이를 위해 巨津항을 떠나 襄陽郡縣北面基士門里앞 4마일해상에서 야간멸치작업후 만선으로 귀항하다가 이같은 변을당했다.

이 사고로 선장 吳씨와 선원 黃鍾煥씨(28·巨津3리5반) 朴基德씨(25·巨津10里)등 3명은 인근을 지나던 창덕호(12톤)에 의해 구조됐으나 기관장 張弘植씨(42·巨津邑巨津5里3班)등 7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기관장=張弘植(42·高城군巨津읍巨津5리3반) ▲선원=金成俊(37·巨津4리6반) 馬榮達(36·巨津4리2반) 鄭南春 尹東浩(여상·巨津3리3반) 金善日(38·巨津3리4반) 崔宗燮(24·巨津3리5반) 【聯合】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③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콩알만한 우박 15분간 쏟아져

安東지방, 농작물 큰피해

【安東】14일하오4시15분부터30분까지 15분동안 경북安東지방에 콩알만한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우박으로 못자리계획면적 4백85정보가운데 이날현재 설치된 전체의 79%인 3백85정보의 못자리비닐이 뚫어졌으며 복숭아 배등 한창 꽃이피고있는 각종 유실수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봄배추 고추 마늘등 각종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혔는데 군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聯合】

崔신부 대책협의 天主敎사회주교위

金壽煥추기경, 尹恭熙대주교, 池學淳(原州교구) 李甲秀(釜山교구)와 杜峰주교(安東교구)등이 모인 천주교사회주교위원회는 14일 상오10시 서울中區忠武路2街 천주교중앙협의회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열고 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 구속된 崔基植신부문제등에 관해 협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모임에서 주교단은 崔신부구속사건외에도 사회문제를 폭넓게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豫備軍 22명 무더기 처벌

命令불복·敎育불참등 최고拘留5일

【慶州】慶州경찰서는 14일 예비군교육훈련때 상습적으로 술을마시고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는등 질서를 문란케한 徐興植씨(32·경북月城郡安康邑根溪1里92)와 고의로 교육에 불참한 양성덕씨(30·慶州市城東洞551)등 예비군 22명에 대해 최고 5일간의 구류와 최하범칙금 3만원씩을 물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군교육때마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참석, 지휘관의 지시를 어기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가하면 고의적으로 교육에 불참한 혐의인데 예비군 작전권이 군에서 경찰로 이관된후 이같은 무더기 처벌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聯合】

過速트럭, 타이탄과 충돌 民家도 덮쳐 7명重輕傷

【釜山】13일 밤8시50분께 부산釜山鎭區釜田2洞 앞길에서 부산7가 2168호덤프트럭(운전사 김영식·26)이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부산7다5732호 타이탄트럭(운전사 전태용)과 충돌한뒤 잇달아 도로변에있는김국홍씨(61) 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타이탄트럭에 타고있던 운전사 전씨등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저녁을 먹고있던 김씨가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운전사 김씨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 도로에 뛰어나온 맨홀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났는데 김씨집은 반파됐다. 【聯合】

巨額빚지고 도주한 국제전광代表 자수

속보=사채와 은행돈등 2백80억원을 빌어쓰고 달아났던 국제전관 대표 李泰水씨(61)가 14일하오3시 서울지검東部지청에 자수해왔다.

李씨는『70년부터 방위산업을 시작하면서 적자가누적돼 빚을 지게됐다』고 말하고『채권단 협의, 미수금 완제품, 개인재산을 처분해 일부를갚고 나머지는 회사를 정상가동시켜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聯合】

「大東韻府群玉」회수

도난 3개월만에、犯人2명 검거

【大邱】단군시대로부터 이조선조에 이르기까지의 지리 국명 인명등 11개항목을 상세하게 수록한 당시의 백과사전격인 大東韻府群玉의 목각판이 도난당한지 3개월만에 경찰에의해 회수됐다.

大邱시경은 14일 大東韻府群玉 1백90점을 훔쳐 처분했던 김관이씨(38·大邱市東區新川4洞447의3)와 김씨의 매부 朴徙福씨(26·大邱市西區內唐洞828)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로부터 大東韻府群玉을 사들인 古花社 대표 朴漢周씨(31·大邱市南區梨泉洞1구417) 柳志社 대표 유지구씨(37·北區山格3洞1423)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동운부군옥 목각원판 1백90점과 향초제기 서불상등 문화재 2백점도 회수했다.

20권20책의 인본인 대동운부군옥은 이조선조때 대제학을 지낸 權文海(1534~1591)가 송나라 운부군옥을 본따서 당시 우리나라 각종문헌에서 발췌한 역사적 사실을 뽑아 수록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임진왜란이전의 역사적사실을 연구하는데 귀중한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聯合】

두딸 기르던 30代광부가 어린딸 殺害후 목매自殺

【太白】지난 11일 상오8시께 강원三陟郡道溪邑田頭4里 흥전국민학교신축공사장에서 정우득씨(33·도계광업소광부)가 나일론끈으로 목을매 숨져있는것을 같은광업소 광부 최인득씨(4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따르면 정씨는 7년전 아내가 가출한뒤 두딸을 데리고 어렵게살아왔는데 지난9일 둘째딸 현주양(10)이 보채다고 돌발적으로목을 졸라 숨지게하고 큰딸에게는 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말라고 위협하면서 매일 술을 마셔오다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것. 【聯合】

寶物실은 러시아船 오늘부터 水中탐사

【浦項】鬱陵島 근해에 침몰된 러시아 보물선의 내부구조를 촬영하기 위한 수중탐사작업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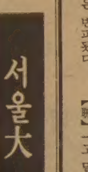
14일 浦項지방해운 항만청에 따르면 露·日전쟁당시鬱陵島근해에 침몰된 러시아순양함 드미트리·돈스코이호(6천2백톤)의 인양작업을 준비하고있는 서울中區忠武路1街5 都進실업주식회사(대표 郭慶培·35)가 선체 내부구조와 실려있을금·은보화의 정확한 양을 찾아내기 위해 日本해저탐사전문업체인 新日本해상주식회사와 계약을맺고 오는5월말까지 수중촬영작업을 계속키로했다는것.

都進실업은 침몰된 선체내에 최소한24조원에 달하는금괴가실려있을것으로 보고 작업을서두르고 있다. 【聯合】

서울大 할아버지

「讀書주간」 도서관守衛 桂柄珍씨

"요즘 젊은이들 禮節좀 더 배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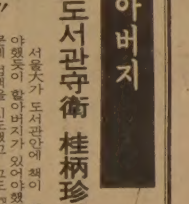


일흔 가까운 나이에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난다. 억센 평안도사투리가 넓은 도서관을 쩡쩡울린다. 『누가 떠들어!』 서울大「도서관할아버지」 桂柄珍씨(69·사진)。 그야말로 불호령을 내린다. 그의 정식직함은 도서관 수문장격인 수위.

그런데도 열람실안의 시끄러운 소리에까지 일일이 권한밖의 간섭을 한다。 하지만 면학분위기를위한 그의 애정어린 간섭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쩌다 옆자리학생과 귀엣말로 속삭이다가 쫓겨난 학생, 학생증이없어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한 학생이 부지기수로많다. 때로는 너무 하지않느냐는 항의도 받지만 할아버지의 원칙엔 흔들림이 없다.

그는 도서관뿐만아니라 서울大를 지켜온 서울大의「산증인」이기도 하다。 서울大근무가 14일로 만27년 4개월째。 도서관장도 제2대 李丙燾박사로부터 9명째 모시고있다。

서울大에 인연을 맺기는 52년6월부터。 평북 宣川이 고향으로 해방이듬해「공산당이 싫어」월남했다。 잠시 행상을 하다가 釜山피난시절 대학도서관에 첫발을 디디게 됐고 그후 75년 정년에 걸려 물러났다가 2년6개월만에 다시 복직하는 사연까지 있다。



서울大가 도서관안에 책이 있어야했듯이 할아버지가 있어야했기때문에 컴백을 시도했고 그도『다시 나와 주셔야겠다』는 학교측의 요청을 근엄한 표정으로 받아 들였다고。

사실 집안 형편으로 봐서 그는 극성스럽게 도서관할아버지 노릇을하지않아도 된다. 다시 복직할때 장남(44·삼환기업부장)등 6남매와 다투기까지 했다。

그의 기억에 남는 도서관의「공부벌레」는 수두룩하다. K장관, 언론인 L씨등 출세한 사람이 많다。 어쩌다 법원에 들어갔다가『할아버지 웬일이시냐』며 반기는 법관도 여럿만났다。

가장 안타까왔던 기억은 4·19때。 많은학생들이 피흘리며 부상입고 도서관으로 도망해왔었으나 손을 쓸수가 없었다。

『학생시절 한눈 팔지않는 학생이 大成하더구먼。 요즘 젊은이들 공부는 많이 하지만 예절이 없는것같아…』

그에게는 일년 사시사철이「독서주간」이다. 【金宗來기자】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써머타임
1982년4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써머타임이 오는 4월 25일 일요일
새벽2시부터 시작된다
써머타임은 10월31일 일요일 새벽2시
까지 계속된다. 토론토시민은 이날을
기해 시계를 1시간미리앞당겨야한다
Roy V. Henderson , City Clerk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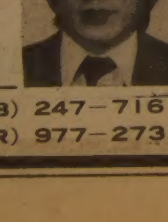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뎀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Yonge
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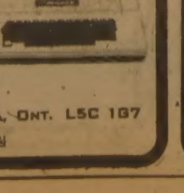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OB、전원安打로 三星완봉 6-0

해태、3개홈런…三美제압 10-2

인터불발로 고심하던 OB베어스의 6번 金裕東이 적지 大邱에서 회심의 2점 호머를 터뜨려 19타수 무안타의 부진을 씻었다. OB의 황금타선으로 기대를 모았던 金은 6게임서 한번도 안타를 치지못했으나 14일 大邱시민운동장서 벌어진 三星라이온스와의 2차전서 5회초 2死후 통쾌한 2점홈런을 날려 OB의 대승에 기여했다.

OB는 이날 우완에이스 朴哲淳의 호투를 발판으로 프로야구 두번째 전원안타(13개)를 기록하며 6-0으로 완봉승, 1차전의 패배(3-2)를 설욕하고 5승4패로 공동3위로 나섰다. 朴哲淳은 이날 三星의 강타선을 6회까지 완전 압도, 7회말 2死후 崔大錫에게, 9회말2死후 朴燦에게 안타를 허용, 노·히트·노·런의 대기록을 놓쳤다. 三星은 朴의 호투에 눌려 2안타 4포볼, 1적실로 겨우 7번 1루를 밟았다.

한편 해태는 1번 金一權, 4번金俊桓, 7번대타金奉淵이 각각 솔로·호머를 날리며 三美슈퍼스타즈의 세투수를 15안타로 두들겨 10-2로 대승했다. 해태의3번 金城漢은 5타수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강타력을 과시하면서 4회부터 구원등판, 三美의 반격을 4안타, 2실점으로 선방, 투타에서 수훈을 세웠다.

대세가 결정된 9회초2死후 발목부상으로 더아웃에 있던 장타자 金奉淵이 7번 대타로 나와 장쾌한 좌중월 솔로·호머를 날리고 절룩거리며 다이아먼드를 일주, 팬들의 갈채를 받았다.

MBC靑龍과 롯데 자이언트의 釜山경기는 심한 비로 연기되었다.

◇전기중간성적 (14일)

팀	승	무	패
①MBC	6	0	3
②롯데	4	0	3
③OB	5	0	4
④삼성	5	0	4
⑤해태	3	0	4
⑥삼미	2	0	7

◇14일전적

◆서울

				계
해태	000	133	012	10
삼미	000	010	010	2

▲홈런=金一權(4회) 金俊桓(9회) 金奉淵(9회·이상해태)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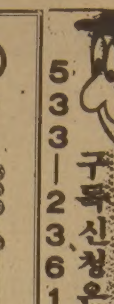
				계
OB	120	120	000	6
삼성	000	000	000	0

▲홈런=金裕東(5회·2점 이상OB)

日도모리 챔피언에 WBC J플라이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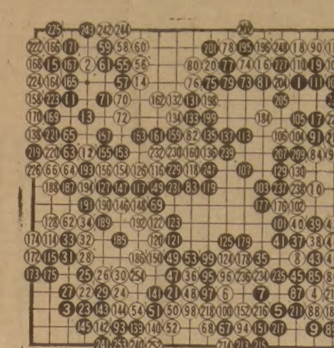
【東京13日AP=聯合】日本의 프로복서 도모리·다다시(22)는 13일밤 도오쿄(東京)에서 벌어진 WBC주니어플라이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인 멕시코의 아마도·우르수아를 판정으로 물리치고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로써 日本은 도까시끼·가쓰오, 와따나베·지로등 3명의 세계챔피언을 보유하게 됐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總譜254手完白1집반勝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徐奉洙〈4勝1敗〉
黑(6段)張秀英〈3勝2敗〉

정말이지 徐7단으로서는 위험하기 짝없는 한판이었다. 1집반勝이라는 근소한차를 말하는것이아니라 종반에 발생한 패싸움이 문제. 이에앞서 순간적방심으로 黑에게 역전의찬스를제공한일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것인지 바로 그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만약 黑이 193의패를 좀더 신중히 사전에 계산했더라면 패감부족으로 모처럼의 鬼手를 무위로 끝내지는 않았을것이고 따라서 이한판의 역전승이 곧 도전권획득의 가능성을 구체화해 주었을지도 모를일. 張6단으로서는 실로 애석하기 짝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이로써 4승1패가된 徐7단은 현재 4승무패인 趙勳鉉 4단과의 결승을 바라볼만하게 되었다. 한편 張6단은 나머지 한판을 지더라도 시드組에는 잔류하게 되어있으니 다

徐7段 아찔한 勝利

음期의 재활약에 기대를 걸어볼수 있을 것같다.

예에따라 이바둑을 대충 훑어보면 시초 하변에서 발발한 전초전에서 黑53으로, 白144자리에 두어 白의연결을 차단하지 못하고 白54로 좌우가 통해가게 한것이 黑으로서는 크나큰 불만이었다.

이뒤는 黑白간 공격할 대상이 없어서 자연 집차지·끝내기 승부가 되었는데 역시 黑53의 미스가 최후까지 영향을 미친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그러나 끝판에 가서 黑185이하 193이 일종의鬼手랄만한 수법이었다. 다만 가석하게도 패를위하여 사전에 黑223등으로 이곳에 패감을 장만하지 못한탓에 (조임기때문일까) 패감부족으로 1집반을 지고말았다. 197, 203…193, 200, 206…194, 208…193 이음, 249…204이음, 소비시간 白=4·10, 黑=4·59。【ㅈ】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流星의 賦 <35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⑱

과천령에 진지를 두고 있었던것은 흑전장정(黑田長政)의 부장(部將) 세천융정(細川隆正)의 군사2천이었다.

홍계남은 병사들로 하여금 야음(夜陰)에 익숙하게한후 초승달이 질 무렵을 택하여 3대로 나뉘어 포복전진하여 적진에 근접했다. 그러기에 앞서 사방에 배치해놓은 백명가량의 척보초들의 이목을 끌기위해 군포근처의 산언덕에 불을 질렀다. 군포의 그곳은 과천령척진지에서 십리허에 있는 지점이었다. 화염과 더불어 수십명의 군사들을 시켜 함성을 지르게했는데 적의 보초들은 차츰 보초선을 확대하여 불의정체를 알아보려고 이동했다.

그 틈을 타서 홍계남군은 적의 진지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진지속의 적들은 대부분이 자고, 깨어 있는 자들은 먼곳의 화염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2경을 조금 지난 무렵 『파』 라는 암호가 날랐다. 『란』 이란 응수가 곧 있었다.

신불이 지휘하는 특수대가 일제히 횃불에 불을 붙여 적의 진지를 향해 던졌다. 자고있던 적병이 무슨 일인가고 뛰어일어났지만 총칼을 손에 잡기에 앞서 수십명이 특수대원의 칼날에 목을 날렸다.

적들이 특수대의 돌격에 정신을 팔고있는 동안서、남、북에서 기어올라간 우리 군사가 들이닥쳤다. 문자 그대로 수라장이 되었다.

진지를 빠져나가 도망치는 적들은 지리를 모르는 위에 어두워 갈팡질팡하는데 야음에 익숙한 우리 군사들은 기민하고 신속하게 행동했다.

소란 속에서 홍계남은 어느 군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적의 장수가 여기에 있읍니다』

홍계남이 그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적의 장수는 4、5명 부하들의 지원을 받으며 어느새 입었는지 갑옷을 받쳐입고 장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모두들 물러서란』

계남이 대갈하고 물었다.

『도대체 네놈은 누구냐』

『구로다(黑田)의 부장 호소까와(細川)이다. 당신은 누구냐』

고 장검을 계남의 방향으로 겨눈채 말했다.

『나는 홍계남이다』

『오오 홍계남』

하고 그는 놀란 말투가 되었다.

『왜 놀라는가』

『언젠가 가모가와변(加茂川邊)에서 당신의 무술을 본적이 있소』

『그렇다면 항복할텐가?』

『나는 항복을 모른다』

『그럼 죽겠다는 말인가?』

『생사는 관천명이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나는 포로가 되진 않을 것이오. 자 결판을 냅시다. 홍장군과의 승부라면 부족할 것이 없소』

홍계남은 들고 있던 장창(長槍)을 비스듬한 각도로 고쳐 쥐고

『편한 고집으로 생명을 버리지 말고 항복하여 살길을 택하라』

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세천(細川)은 대답대신 「앗」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장검을 홍계남에다 찔렀다. 순간 계남은 날쌔게 그 칼끝을 피했는데 계남의 장창이 세천의 가슴에 꽂혀 있었다. 세천은 「무념(無念)」이란 한마디를 토하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6>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⑳

『기차시간 늦는다니까요』

인재가 다시 볼멘 소리를 지르며 더는 참을수 없다는듯이 일어섰다. 그가 음식값을 셈하는 동안 노모는 우선 짐질 끌리는 치마꼬리를 챙기고 주섬주섬 휩싸고나서 큰며느리의 퇴물림인 비닐백을 챙기고 아까부터 인재한테 구박만 받던 종이꽃이 주렁주렁 달린 화환을 들어올리자 인재가 벌컥 화를 냈다.

『아 그까짓건 뭣하러 여기까지 갖고와요, 오히려 남부끄럽게시리. 그만 내버리고 가요』

인재는 그때까지도 수지한테 받은 장미꽃다발을 소중하게 받쳐들고 있었다. 셀로판지에 싼 장미는 방금 피어난 것처럼 이슬을 머금고있었다. 요망한것, 노파는 그 장미꽃에다 수지의 얼굴을 겹쳐놓고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한바탕 해줘야 뜨거운 분이 좀 풀리겠는데 가슴이 떨려서 말이 안나왔다. 그 동안 셈을 끝낸 인재는 어디론지 전화를 걸고있었다. 그 신사다운 뒷모습이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울수록 좀전에 받은 수모의 상처도 컸다.

흥, 저 잘난 아들을 누가 낳았게? 내 뱃속에 열달내 품고있다가 하늘이 돈짝만 해지도록 신고하고 낳은 천금같은 내 아들이건만 요망한 서울 계집한테 홀리고 나니 에미 알기를 쉰 떡같이 아는구나.

노모는 분하고 억울했다. 그러나 앞뒤의 말을 가려하고, 그 종이꽃다발을 들고나올 용기도 없었다. 노모는 불과 한시간만 해도 아들의영광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꽃다발이 급속한 영락이 마치 자기 신세 같아서 가슴이 찡했다.

어딘론지 전화를 걸고난 인재는 기분이 매우 언짢아 보였다. 노모를 보는 눈이 한층 차가왔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치마는 왜 그렇게 자꾸 흘러내리는지 노모는 치맛자락을 잡고 주체를 못하면서 질펀한 골목길을 허방지방 걸었다. 인재는 다시 어머니를 재촉하지않았지만 몇발짝 앞서 가다 돌아서서 기다리고, 앞서가다 돌아서서 기다리는 품이 매우 초조해 보였다. 그런 말 없는 재촉이 늙은 말에 가해지는 사정없는 채찍질보다 더 모질게 노모의 마음을 때렸다.

도시의 뒷골목의 시커먼 진창을 휩쓴 노모의 치맛자락이 다시 버선발을 스쳐 노모의 아랫도리는 말이 아니었다. 인재 보기에도 노모의 키는 진창으로 찾아들듯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노모의 한껏 부푼 마음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노모의 외모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오므라들어 보인는걸 인재도 어렴풋이 눈치 챘지만 노모가 귀찮은건 어쩔수 없었다.

큰 길로 나오자 그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노모를 쑤셔박듯이 거칠게 태우고 자기도 올라탔다.

『서울역으로…』

노모 듣기에 매우 화난 소리로 말한 인재는 우선 담배를 피워물고 멍한 시선을 차창밖으로 돌렸다.

『지집은 그저…』

노모가 가래 끓는 소리로 못다한 얘기를 계속하려고했다.

『엄니, 잠깐은 제가 드든겁니다』

인재는 싸늘하게 노모의말을 가로막았다. 노모는 움찔하면서 자기가 시골집에서얼마나 당당한 늙은이였던가를 꿈같이 회상했다. 지금도 노모는 집안의 중요한 주도권을 쥐고있을뿐아니라 공연한 트집을 부리다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만큼 큰아들 큰며느리는 동네에서도 이름난 효자 효부였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㉘ (題字 金蘇東)

다혈질이며, 낙천가로 자처하던 내 자신을 너무 많은 일에 혹사시킨것같다. 그러나 희망찬 전진과생활의 발판을위한 노력이 마치 파리의 뒷골목, 라틴가에서 고학하는젊은 학생들의 모습을 방불케했다. 야망, 저들 그러한 무모가 가득찬 나날이 불규칙하게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밟는동안 결코 지쳐버리거나 용기를 잃는 일은 없었다. 흥분하게 자립해가는 내모습에 오히려 희열을 느끼면서 미구에 다가올 미래의 하늘을 바라보곤했다.

때로는 멀리 지바현(千葉縣)의 풍경명미한 해안지방까지도 가고, 구사쓰(草津) 온천, 가루이자와(軽井澤)까지도 갔다. 한번은 이이다바시(飯田橋)를 거쳐 네리마(練馬)로 가자는 미모의 젊은 여성이 탔다. 네리마에서 다시 무라야마

美貌의 女子손님

(村山) 저수지로 가자는 것이다. 요금은 후하게 내겠다고했다. 긴시간을 달리는동안 한마디도말이 없었다. 침묵을 지키는 그녀의 얼굴을 백미러로 봤다. 어딘가 고

"厚謝하겠다" 종일달리고 술나누며 失戀사연 告白

귀하고, 의상도 품위가 있어 보였다. 얼굴도 미인이며 몸매도 날씬하다. 우수에 잠긴 그녀는 무라야마저수지의 호수물이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워달라는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 뭔가 말못할 사연이 있는 여인으로 생각됐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신도부근까지 차를 몰고가서 그녀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피며 기다렸다. 부신자살을 연상케하는 분위기와 불안이 저물어가는 석양을 초조하게했다. 간곳을 알수없었다. 급히 차에서 내려 언덕밑으로 가보니 바위위에 망연히 혼자앉아 석양놀을 쫓어진듯 바라보고있는것이 아닌가. 해가 저물었으니 동경으로 돌아가자고했다.

끈질긴 설득으로 간신히 차에 태웠다. 우리는 캄캄한 밤길을 대화도없이 동경을향해 질주했다. 그녀는 실연의 충격을 안고 목적지도없이 차를 잡아탔다며 신주쿠에서 내려 함께 술한잔하자는 것이다.

음악학교에서 바이얼린을 전공했다는 그녀를 후일 다시만난것은 긴자(銀座)에 있는 고급찻집에서였다. 나만이 이여인을 보았으나 못본체해버렸다. 후작의 딸로태어난 이 미모의 여인은 그후 소식을 알길이 없었다.

은행나무 잎새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이왔다. 알뜰히 노력한결과 2학기를 그런대로 무난히 보낼수 있었고 기말시험을 치르기위해 바쁜 나날을보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바이얼리니스트 곽창준이 비를 맞은채 술이취해 찾아왔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역시 술이취한 미모의 여인도 같이 왔다.

의외의 침입자들을 맞이해서 코피한잔을 끓여 대접했다.

◇日本大學재학중 日人학생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앞줄⊙가 필자。

후일 곽창준이 下宿집에 데려와 "결혼할 사이다"소개…뜻밖의 해후

『우리 결혼할사이니까 밤이 좀 늦었더라도 용서 하게나。 이 사람아!』

곽창준은 혀꼬부라진소리로 그녀를소개했다。 인사를하는 순간 나는 놀라고말았다。 바로 내마음서 늘껄리던 무라야마 저수지에 같이 갔던 그여자가 아닌가。 나도 놀랐거니와 그도 내얼굴을본순간 당황했다。

우리는 모른체하고 그 순간을 태연히 넘겨버렸다。

두사람을 남겨놓고 나는 옆에 붙은 일본인 학생방으로 자리를 피했다。 우연이라고 할까、 인연이라고 할까、 동경은 넓고도 좁은곳이다。 50년전 일이기는하나 며칠전같이생각된다。 곽군도 간지오래고 그녀도 살아있다면 70고개를 넘어 섰으리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으레 차를몰고 동경시내를 누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일본인들의 인간상이 잘드러날뿐더러 시대의 이면상을 잘 파악할수있다。

그들의 교활하고 간악한 일면도 볼수있고、또 근시안적인 좁은 사고방식도 짐작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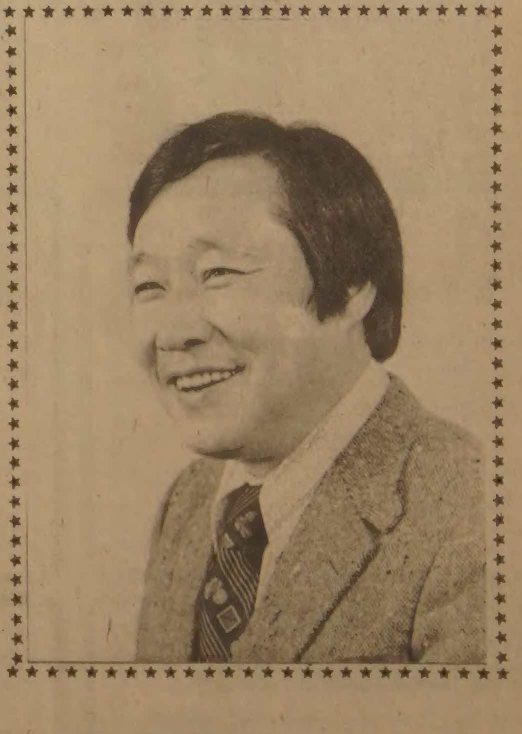
우수수 낙엽이 진다。 곧 기말시험을 쳐야한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모두 내일의 설계에 바쁘다。 일본생활 5년을 뒤돌아보니 허송세월을 한것만 같다。 과잉의욕 탓일까。

테레비죤선교방송 테레비죤선교방송 테레비죤선교방송 테레비죤선교방송 테레비죤선교방송 테레비죤선교방송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생명의말씀

T.V.선교방송1 주년기념선교집회초대

"교민여러분의 도움으로 날로 성장해가는TV선교방송. 생명의말씀은 이민생활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 일 : 4월25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Davenport Rd & Oakwood
강 사 : 곽 규 석 장로(일명 후라이보이)
"한국연예인교회시무장로"

지난 일년동안 본방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특히 본방송의 설립 과정에서 수고하신분들·제작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계신분들·프로그램을 위하여 말씀·음악·좌담·간증등 바쁘신중에 출연하여주신 모든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일요일 8:30-9:00 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목요일 12:30-1:00 p.m. M.T.V. (Channel 47, Cable 4)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88 LAKESHORE BLVD.W. WINDOW SHADE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전화 : 267-2292

미시사가한글학교
전화 : 822-6438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김미영한국민속무용연구소
전화 : 499-5079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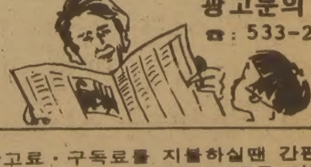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광 고 접 수
533~2361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 자개농 에 관해 조예가 깊은 분으로서 자개농, 약장등 수리도 하 실 수 있는분 구합니다.
전화 : 486-0397 (Mrs. Kim)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09 Mr. 박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 749-0579

한국음식에 조예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537-0432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
전화 : 922-3061 Mr. 김

조용한 동네안에 위치한 미장원 장소 Rent
원하시는 분이나, 미용사자격증 가지신분 구합니다.
전화 : 851-1731, 851-3866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도너쯔 Shop에서 일할 학생 구함.
화, 수, 목 3:00-11:00 P.M.
금, 토, 11:00-7:00 A.M.
◆Variety Cashier 유경험자 구함.
토, 일 근무 12:00-10:00 P.M.
Young × Eglinton 전화 : 482-4088 481-2172

81년도 7, 8월경에 아버지와 같이 이민온 서현주씨를 찾읍니다.
전화 : 633-5231, 669-6714 (유 선 옥)

유경험자 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2546

Juice Bar Helper (Full Time)구함
전화 : 438-0403 7시이후 연락바람. Mrs.유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구 직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Max Milk 또는 Becker, 매니져가 필요하신분 연락바람.(많은경력있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일할 수 있음. 265-0436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세탁소 급매
(Dry Cleaning Plant)
전화 : 922-9847

TWO DOOR POP COOLER 팝니다.
전화 : 438-1528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 가격 : $39,500 Rent : $328
낮 1-519-439-8279(R) 오후 1-519-681-7631(B)

건물및 상점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 : $8,000 아스킹 : $229,500
237 PARKLAWN RD.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스카브로에 있는 세탁소 급매
Asking Price : $6,300
Call Nick, (R)439-7796, (B)751-6850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BECKER MILK 후렌차이즈 매매
꼭히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4746 Dundas St. W. (Islington)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전화 : 699-4804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Good Location, Good Lease.
Asking Price : $12,000
전화 : 652-1647 (Mrs. Maria)

Using Language Labolatory,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Grocery, Variety, Dry Cleaning
Best Location for Good Money Making.
Very Reseasonable price for Sale. 783-0134 (Bobby)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성업중인 미니 수퍼마켓 급매
1주5일 영업 (화요일-토요일)
문의전화 : 259-7422

한국일보 광고문의
☎ : 533-2361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K A L : 862-8250
- 코리아타운 번영회 : 532-2727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동)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248-2437(R)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휘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화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불 교

대 각 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 463-P998

불 광 사
288 Hownslow Ave. 전화 : 223-9152

선 련 사
46 Gwynne Ave. 전화 : 532-3491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터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국일보 안내광고＊

2ND CLASS MAIL NO. 5248